

외교부 박진 장관, 미국 연방 하원의원단 면담



박진 외교부장은 2월 23일 방한 중인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 등 미국 연방 하원의원단 4명 및 프랭크 자누치(Frank Jannuzi) 맨스필드 재단 소장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역내 경제, 글로벌 이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첫 연방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역할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공조 및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북핵 위협 대처를 위해 확장억제 실효력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함을 평가하면서도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입양인 시민권 부여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 의원들은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한미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미간 인태전략 확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동 의원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최만식기자

윤석열 대통령, 민관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수출 증대 나선다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24일 지난 1월 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기업인 40여 명의 간담회에서 민관 합동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순방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수출 증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과 관련된 현장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출·수주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해 우리 기업들에 세계시장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직간접 수출을 합쳐 우리 수출의 약 40%를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한다며 특히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담긴 혁신 기술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대한민국 영업사원 원팀으로서 UAE 국부펀드 300억 불이 대한민국에서 즉각 체결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 '제2의 중동붐'을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UAE 순방의 결실인 수출, 투자유치 등 중소기업 분야의 성과창출 주요 사례를 점검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

에 대해 들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순방 경제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UAE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젊은 과학기술 리더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바라카 원전 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오늘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UAE 순방 이후 수출계약 등을 체결한 주요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하고, 전시된 제품별 특성, 작동 방식,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및 성공 요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시연 부스는 ①(주)엑스바디의 근골격 동작검사 장비(전신 근골격 전반체의 정량 분석 및 결과를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 ②(주)와이즈넷의 AI 기반 챗봇 솔루션(자연어 처리를 통해 질의응답, 검색, 멀티패턴 대화 등 민원서비스 제공), ③(주)앙트리리얼리티의 모션 트래킹 아바타(3D 모션 캡처를 활용한 아바타 구현 및 패션 브랜드 가상 피팅), ④(주)포스콤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기(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한 이동 가능 검진 장비), ⑤ 엘렉코리아(주)의 슈퍼비전 카메라(열



악한 기상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카메라), ⑥(주)스리비리언의 AI 유전자 진단 솔루션(유전정보와 진단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 등 총 6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오찬을 겸하여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기업인, 정부,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순방을 계기로 UAE 촉과 수출계약 체결, 투자유치, 현지 진출 등에 성공한 중소벤처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UAE 진출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건의사항,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300억 불 규모의 국부펀드 투자는 UAE 측이 대한민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결정한 만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정부는 UAE 순방의 성

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첫째, 두바이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23년 3월, 기존 수출인큐베이터를 확대 개편)하여, 현지에서 금융 원활화, VC투자 촉진, 인증획득,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금년 6월에는 UAE 현지 미디어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판촉행사(가칭K-비즈니스데이)를 개최하고,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셋째, UAE 스타트업 전시회('23년 3월, BABAN) 참여, 국부펀드 300억 불 투자 계획 관련 벤처투자협력 논의의 등 벤처·스타트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원전 분야 대중소 동반 진출 지원,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박람회 등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경기도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 모집... 재난 대응 지침 제작·안전 정보 전달



경기도와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전염병, 수해, 폭염, 화재, 한파 등 재난에 외국인 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를 모집한다.

이들은 기존 안전 문화 정보를 수집해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지침(매뉴얼)을 제작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각자가 속한 이주민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내 생활하는 이주민 중에서 한국어 능력이 고급 수준이고, 지역사회와 이주 인권 옹호 활동 경력이 있으며, 누리소통망

(SNS)을 활용해 소통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활동 예정이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센터 누리집(gmhr.or.kr)에 있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연중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가 이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안내하고 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레소토 국왕, 총리 등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해

이번 순방에서 교섭국 맞춤형 사절단 구성으로 보다 실질적인 한국형 교섭 모델 제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최 후보 도시 시장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박형준 시장은 일정 중 첫 번째로 레소토왕국을 찾았다.

박형준 특사는 현지시각으로 24일 램셋3세 레소토 국왕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최근 레소토에 직업훈련센터, 교육환경 개선, 산림 조성 등의 분야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음을 전했다. 이에 램셋 국왕은 한국의 레소토의 오랜 우방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지원이 레소토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형준 특사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의 주요 의사결정자인 마테가네 레소토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한국-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레소토의 숙원사업인 '모슈에슈에 국제 공항' 개선사업, 신발·섬유 등 제조, 농가공 등 농업, 정보통신 등 기술 혁신, 문화, 관세행정 마스터플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구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폭넓고 심층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마테가네 총리는 박형준 특사와의 면담 자리에 부총리, 외교부, 재무부, 교통부 장관과 관계부처 주요 관리들을 배석하게 했다.

한편, 박 특사는 음포조아니 외교장관과 마틀라니네 재무장관과도 별도의 면담을 가지고,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아울러, 박형준 특사는 한국과 레소토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기초연설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기업인들의 역할을



당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양국 기업 간 실질협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자 한다고 소개하며 기업인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레소토 국영방송(LNBS)과 별도의 회견을 가져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고 한국과 레소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간담회 기초연설과 회견 내용은 주요 뉴스 방영시간인 이날 저녁에 상세히 방영돼 레소토 내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레소토는 물론 인접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기업인들의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번 대통령 특사단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중점 교섭 국가 순방 전략의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있게 이행함으로써 지지국 확보를 위한 구체 실질 협력사업 추진에 특화된 새로운 한국형 개발 협력 교섭 모델을 제시했다.

즉, 대상국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

과 병행해 24일 열린 민간 기업간거래(B2B) 간담회는 대한민국과 레소토 기업인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대규모 직접 협의 행사로서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또한, 이번에 우리 특사단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맞춤형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레소토 내 지지 및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여타 경쟁상대와의 관계에서 비교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형준 특사는 램셋3세 국왕을 비롯한 레소토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고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레소토의 특화된 개발 및 발전 수요를 반영하고, 식량, 에너지, 기후 변화 등 전세계 인류가 당면한 공동의 위기와 도전에 더욱 효율적,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특사는 레소토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레소토 양국 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이해관계가 아닌 장기적인 이익에 기초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맞춤형 사절단과 함께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내실있게 이뤄내 레소토의 한국을 향한 강한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형준 특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3월 3일까지 대통령 특사로서 레소토왕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이다.

송종진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찾은 안철수 당대표 후보, '수도권 필승론' 부각

곽미숙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 통해 당심지지 호소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뒤편에 안철수 의원이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찾아 '수도권 필승론'을 부각하며 당심 지지 호소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를 방문,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김철현(안양2) 예산위원장 등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단을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총선 필승' 의지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어떤 당 대표 후보가 내년 총선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느냐를 가르는 문제"라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격전지이자 최전선이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전당대회는 거기에 맞는 진용을 짜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중도성향 2030 유권자가 많다. 저는 그 사람들의 표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며 "도의원님들과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힘을 합치면 내년 총선에서 170석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 관련, 국회 차원의 추가적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곽 대표의원은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되는 현행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는 현재로는 전문위원실(상임위원회) 소속 인력이 늘어나는 방식에는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국회 보좌진과 같이 별정직 채용의 길을 열어준다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

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광역의원에게도 반드시 보좌관이 지원돼야 한다. 그건 제 신념이고 소신"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영기자

대구 북구의회, 『제276회 임시회』폐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차대식)는 2월 24일(금) 오전 11시 제 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시철도 엑스코션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월)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업무보고 건의 청취와 함께,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제 감면 동의안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 가결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김현주, 오영준, 이상봉, 이현수, 임수환, 장영철, 허정수 의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3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현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오영준 의원을 선출했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다. 2023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실시 환영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4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 생활권 중심지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2, 국민의힘)은 이문차량기지 약 20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도에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연계에 관한 용역이 실시된 바 있으나, 해당 용역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실효성이 적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김태수 의원(성북구4, 국민의힘)과 심미경 의원이 관계 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구상이 가시화됐다. 이문차량기지는 성북구 및 동대문구 지역단절과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혀왔고, 그 일대는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 민원도 많았다. 이로 인해 주변 개발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와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업내용에 '대상지 및 차량기지 이전관련계획 등 기초조사, 복합개발 유형화 및 활용방안 검토, 적정 사업방식 등 사업화 전략 검토 등'을 포함시켜,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단절된 지역 내 연결성을 확보하고, 토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 공간을 창출하는 등 거주자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개발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은 용역 예산 2억원을 확보하는 데 힘써주신 김태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4일 창원특례시 솔라타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92년 1월 24일

신설되어 30여 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의회사무기구 근무공무원 특수직 무수당 현실화, 의회 전문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정원 확대, 그간의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원균 의장은 "특례시의회의 조직,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특례시의회 토론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특례시의회의장들과 협력해 중앙기관 등 관계

부처 설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 현장 방문, 안전한 원전 관리 당부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김슬지, 염영선, 임승식 의원은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현장을 23일 방문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고창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현황, 원전 정기검사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및 온배수 처리 문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향, 고창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 전원 사퇴에 따른 대응방

안 등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정기 의원은 "원전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필수적"이라면서, "고창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면담을 마치고 의원들은 계획예방정비가 끝나 22일 재가동에 돌입한 한빛 6호기의 시설을 직접 돌아보며, 한수원 관계자에게 철저한 원전의 운영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인남기자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 벤치마킹 요청 쇄도

경남도의회 입법평가팀, 충남도의회 두 번째 벤치마킹 방문

입법 평가를 선도하는 충남도의회가 지난 14일 광주시의회에 이어, 23일 경남도의회와도 입법평가제도 안착 및 향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출범 직후부터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벤치마킹 방문, 올해 1월 전담부서 신설에 이어 이날 실무지원 협의 등을 위해 두 번째 벤치마킹 방문을 실시했다. 경남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설된 입법평가 전담부서로, 충남도의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입법평가제도 발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는 충남도의회에 참석을 요청했다. 이정구 사무처장은 "충남도의회 선진 입법평가모델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년간 11개 지방의회 입법평가제도 정착을 지원해 왔으며,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의회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충남도의회 모델을 벤치마킹 해온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방문에 이어 내달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기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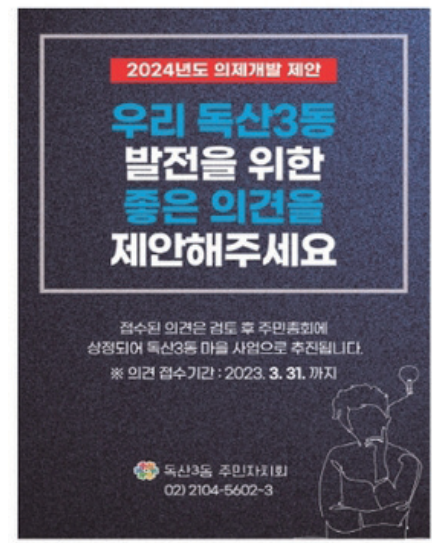
편집국:02.2612.2959 정 취부:대선 (112) 문 화 부:대선 (116)
 사 회 부:대선 (113) 부 동 산 부:대선 (117)
 경 계 부:대선 (114) 오 피 니 언 부:대선 (118)
 광고국:1899.9659 스포츠부:대선 (115) 지 방 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앞서 주민 의견 받는다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위해 설문조사, 현장 탐방 등 주민의견 수렴



금천구는 10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할 자치계획 수립에 앞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을 동 단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민주주의 장을 말한다.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동 지역사회에서 주민 최고의 의결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동 주민자치회는 3월 말까지 설문조사, 1 위원 3 주민 만나기, 찾아가는 주

민 상담, 현장 탐방, 주민자치회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주민의 의견 수렴 활동을 거쳐 발굴한 의제는 주민 공론장,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6월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주민 공론장은 3월 중순부터 운영하며, 골목 단위 소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공론장이 주민 속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의 공론장 시연'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장 운영은 자치력 향상에 꼭 필요한 활동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서울시, 사계절 즐거움이 넘치는 한강! '2023 한강페스티벌' 민간협력사업 공모

시 한강사업본부, 온갖 즐거움이 모이는 '2023 한강페스티벌' 본격 시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온갖 즐거움이 모이는 한강'을 주제로 계절마다 개최되는 '2023 한강페스티벌'에 함께할 민간협력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일정은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한강페스티벌'은 지난해부터 사계절로 확대 실시된 한강 축제 브랜드다. 올해는 2년 차를 맞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계절 한강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취와 즐거운 활동을 가득 담은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봄(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 나들이를, 여름(7~8월)에는 수상레저·문화예술·생태체험 등 즐거움 가득한 피서를, 가을(10월)에는 한강 노을과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여유를, 겨울(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민간협력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3 한강페스티벌'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건다.

민간협력사업은 한강의 문화·예술·여가 활동에 적합한 민간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여 보다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며,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대표 사례로 비경쟁 워킹 레이스' 한강나이트워크42K('16~'22)'반포 한강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물 위에서 만날 수 있는 '한강킹카누물길여행('18~'22)'문화콘텐츠와 한강의 풍경이 어우러지는 '라이프플러스 시네마 워크('19)' 등이 있으며, 2022년에는 총 14개의 민간협력사업이 진행됐다.

공모 참가 자격은 사업예산 자체 조달과 실행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으로, 시민을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민간기업의 참여를 기다린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형(음악공연, 영화상영, 책문화 등) 설치미술형(캐릭터 조형물 설치, 연말연시 경관조명 등) 한강투어형(도보, 자전거, 레포츠 등 활용 한강투어) 휴식감상형(아트쉼터, 피크닉) 네 가지이며, 일하는 분야의 공모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계획안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서면 및 인터뷰 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제 적합성, 공공성, 안전관리, 사업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3월 말 조건부 선정 후



세부 협의를 거쳐 5월 중에 선정 여부가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2023 한강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된다. 민간협력사는 행사를 주관하여 총괄 기획 및 실행을 맡고, 서울시는 장소 제공, 홍보 등 행정 사항을 지원한다.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문

화홍보과로 하면 된다.

주요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서울의 대표 매력 한강에서 열리는 사계절 축제 '한강페스티벌'이 민간협력사업을 통해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골목길 범죄 막는다!' 관악구,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

관악구가 관악경찰서와 협업하여 서울시 주관 '2023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 공모' 사업은 범죄 취약지에 범죄 예방 시설물 등을 구축하여 안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신림동'이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지난해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신사동'을 대상지로 응모하여 서울시로부터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설계비와 시공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두려움 유발 요인, 안전 사각지대, 우범지역 등 주거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 문제점을 도출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안심 디자인으로 설계 및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 ▲CCTV 확대 및 LED 안내판 설치,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은

CCTV, SOS비상벨, 조명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골목길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주도의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4개소를 조성했으며 올해는 신림동과 대학동 일대를 추가로 조성 중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보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골목길 CCTV를 50개소에 확대 설치하고, 노후 CCTV 175개는 새롭게 교체할 예정이다. CCTV가 야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LED안내판도 120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CCTV 인지를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골목길 조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생활안심 환경 조성 외에도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심야 안전귀가를 지원하고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총체적인 치안망을 구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살터 관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송파구,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 징수...목표액 107.2% 초과달성으로 조세 정의 실현!

등록면허세 5.9%, 지방소비세 163.6% 목표대비 초과징수

송파구가 지난해 구 세입 4,30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2.021억 원) 대비 288억 원 초과 달성(107.2%)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676억 원(62.1%), 등록면허세 279억 원(6.5%), 지방소비세 86억 원(2.0%), 세외수입 1,258억 원(29.2%) 등이었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6월 30일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여, 재산세는 목표대비 0.2% 부족한 징수율을 보였다.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신축분양에 따른 차량권 설정등기 증가로 초과 징수했으며,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022년 지방소비세율 인상(2.7%)으로 지난해 13

억 원 대비 552%로 대폭 증가했다.

구는 꼼꼼한 세입관리를 위해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해왔다. 코로나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주제원을 확보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액채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상습·고액채납자에게는 압류 공매와 관허사업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고충 상담과 채납지원유예,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으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갔다.

구는 2023년도 예산을 1조1,752억 원으로 확정하여, '구민을 주인으

로 섬기는 명품도시' 비전을 달성을 위해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교육 창달의 도시 등 6대 전략 목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자금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체감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구 재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광석 송파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구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덕분"이라며,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영등포구, 야간 교통사고 위험 확 줄이는 투광등 설치

영등포구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투광등 설치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투광등은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조명 장치이다. 투광등 설치하는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는 물론 늦은 밤이나 눈, 비, 안개 등 굵은 날씨에도 보행자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2018년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투광등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를 전년 대비 10.1%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다. 이는 투광등이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증가하고 보행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는 행동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영등포공원, 선유도역 교차로 등 57개소에 투광등 207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3월까지 영신초등학교 정문 등 132개소에 투광등 46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영등포경찰서 요청을 반영해



노년호 도로과장은 "투광등 설치가 야간 보행자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투광등 설치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투광등 설치가 야간 보행자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서초구, 스스로, 그리고 함께 배우는 2023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최



서울 서초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23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연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17개동 약 150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며, 2부로 나누어 테마별 교육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1부는 "주민자치의 이해"로 주민자치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민자치위원 개별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2부 "사제로 보는 '함께하는 주민자치'"에서는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중심으로 현장감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향후 서초구 주민자치에 대한 방향도 모색한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참여동기를 부여해 동별 주민자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93여명의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추진하고, 다양한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자치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로 수출인턴 67명 위촉...기업 파견채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발대식서 위촉장 수여...관내 대학들과 업무협약, 해외 판로 개척 활동에 참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보이는 '용인특례시 수출인턴'이 발대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수출인턴 발대식'을 맞아 6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출인턴 지원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구인난 해결을 돕고 청년 무역인들에게 경력을 쌓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출인턴은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활동에 지역 내 대학생 무역 인재를 인턴으로 참여해 제품 홍보, 바이어 응대 등을 맡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관내 대학인 단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대학생들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은 산

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위탁 운영해 대학생들이 무역실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무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다. 수출인턴 67명은 이르면 3월부터 관내 중소기업 30개사의 국내 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무역이 중요한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선배세대가 그야말로 수출역군이 되어서 경제를 일으켜 세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후배들인 여러분들께서 선배들보다 더 놀라운 역량을 발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여러분이 어려운 국면에 있는 수출에 좋은 활로를 개척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소기업인들이 너무나도 고마워할 정도의 도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왼쪽)이 수출인턴 위촉장 수여를 하고 있다. 위촉장 수여를 받고 있는 수출인턴(오른쪽)은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해외 판로 개척 활동에 참여한다. 위촉장 수여를 받고 있는 수출인턴(오른쪽)은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해외 판로 개척 활동에 참여한다. 위촉장 수여를 받고 있는 수출인턴(오른쪽)은 중소기업에 파견되어 해외 판로 개척 활동에 참여한다.

민생상생 일자리로 재도약하는 부천!

부천시는 지난 16일 근로종합복지관에서 부천시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부천상공회의소, 한곡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한 20개 기관이 참여해 2022년 일자리 정책 추진성과 및 2023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0년 구성된 부천시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협의회는 기관 간 정보공유, 공동 행사 추진, 일자리 창출 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시민의 취업 알선을 전담으로 추진하는 부천 일자리센터는 2021년에 이어 2022년 경기도 취업실적 1위를 달성했으며, 부천 고용센터 역시 지난해 일자리 유관기

하남시, 국토부 주관 하자 관리 간담회 참석, 당면 현안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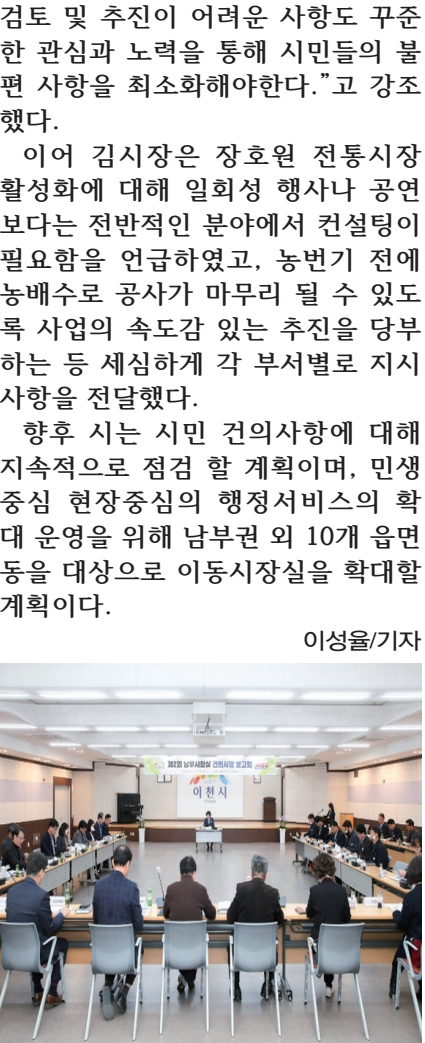


하남시는 지난 23일 하남감일지구 B8블록(제일풍경채)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간담회'에서 ▲감일지구 연결도로 공정 지연,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교산지역 물량 확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안) 변경 요구, ▲K-스타일드 조성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지원 요청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본 간담회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중주호암)의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을 비롯하여 시공업체 및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응책으로 품질관리 전담인력 강화, 하자조치 완료 후 공사비 잔금 지급, 처리 진행상황 모바일앱 활용 의무화 등 강력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유자 등 공적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최고의 평가자는 입주민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재 시장은 금번 하자관리 대책이 하자 걱정없이 입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해를 당부하고, 기 입주된 공공임대주택의 처리되지 않은 하자문제까지도 포함하여 개선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교통, 자족, 일자리 등 굵직한 하남시의 현안 사항도 건의했다. 첫째로, 감일지구와 관련해 '감일지구 연결도로(4개 노선) 건설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조속히 마무리와,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시점부가 아파트가 밀집된 감일지구를 관통하게 되면 주거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외곽으로 시점부 변경

이천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시장실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이천시는 2월 23일 시청대회의실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이성호 부시장을 비롯한 소관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남부시장실 건의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13회에 걸쳐 남부시장실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기간 건의사항은 총 232건으로 추진완료 등 75건을 제외한 157건이 논의되었으며, 세부추진현황은 추진중 126건, 장기검토 22건, 추진불가 9건으로 집계되었다. 건의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농업, 교통 분야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다수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인인구가 많은 남부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농촌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을 한 사례 ▲광주 - 장호원간 직행버스 도입추진으로 대중교통 난을 해소에 기여한 사례가 수범사례로 뽑혔다. 김경희 시장은 "타 기관 및 타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달라"며 "장기검토 및 추진이 어려운 사항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시장은 장호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일회성 행사나 공연보다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컨설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농번기 전에 농배수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는 등 핵심하게 각 부서별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향후 시는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의 확대 운영을 위해 남부권외 1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동시장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욱/기자



국민배우 김수미, 양평군 홍보대사로 위촉

시원한 입담과 다양한 계층의 팬 보유



양평군은 24일, 국민배우 김수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군수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위촉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배우 김수미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배우 김수미 씨는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그동안 많은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KBS2 '수미산장', tvN '수미네 반찬', QTV '수미옥'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하게 시청자들과 소통해왔다. 또한 김수미 씨는 연예계 대표적인 김치 장이씨와 '수미네 반찬' 등 요리책을 발간해 다양한 요리 노하우를 전달했다.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어머니 이미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에 양평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에서 김수미 씨는 "물이 맑고 공기가 좋은 양평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제작해주신 홍보대사 명함을 가지고 양평을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의 새로운 홍보대사가 되신 김수미 씨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국민 배우로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욱/기자

인천시, 올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도 통행료 지원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에 대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확대된다. 인천광역시시는 올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인천공항영업소)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6,600원 중 3,7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이용해 도심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가 지원됐지만, 10월부터는 상부도로를 이용해 서울 등 타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통행료 지원은 지난해 9월 영종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통해 유정복 시장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다. 상부도로 통행료 3,700원을 지원하게 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통행료는 2,900원이 되며, 이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0배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상부도로 통행료가 지원되면 그동안 통행료를 지원받기 위해 영종대교 하부도로(북인천영업소)와 청라나들목(IC)을 번갈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 청라나들목(IC) 진출입을 위한 차량으로 인해

빚어졌던 첨두시간 교통 체증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통행료를 지원(감면)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에서 감면 카드를 직접 접촉해야만 돼 첨두시간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됐고, 감면 카드 발급에도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주민 불편이 컸다. 따라서,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과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교통 체증 해소와 감면 카드 발급에 따른 주민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이 시작되는 10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통행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77억여 원의 통행료를 지원했으며,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게 되면 연간 약 35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를 추가 지원하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 만드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부지정을 발표했지만, 과밀억제권역인 교산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공업지역 배정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경쟁력 있는 영커기업 및 후속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물량을 최소 30만㎡로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이 시장은 "K-스타일드 조성사업은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단계 일자리 창출되는 사업임에도 수질등급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실무협의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현재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전문가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시장을 하시면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 사항을 폭넓게 질의하는 것 같다"고 답변하며 하남시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토부장관과 동행한 주택토지실장(권혁진)에게 관련 현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자 권실장은 실무진에 관련 사항을 검토토록 지시했으며, 이에 실무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현안사항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아파트 하자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도 발맞추어 점검 등에 힘쓰고,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장관 원희룡), 하남시, HUG,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사 대표, 입주민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하여 임대주택의 하자 관리의 개선체계 구축 등에 대한 대담이 진행됐다. 박강호/기자

안성시,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 설명회 개최



안성시는 지난 24일 안성시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 설명회를 대한한돈협회 안성시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안성시는 전국 최대규모의 가축사육지역으로 2천여농가에서 6,253천두(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축산냄새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한편, 특히, 악성(다수인, 고질) 민원의 경우 양돈 관련이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관내 한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임에 따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축산업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저탄소·친환경 축산을 만들기 위한 도약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미래 성장산업인 농업의 확대 및 육성을 위한 첨단농업 개발로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함께 발전하며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하여 관련공무원 및 한돈농가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박혜인 축산정책팀장은 “안성시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 추진 설명에 이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종필 팀장의 사업별 추진절차 설명(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조성,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적용, 냄새관리 ICT 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안성시에서는 2023~2027년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사람·가축·환경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축산업 육성을 위해 중·대규모, 청년농 위주로 안정맞춤형 축사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개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 위주로는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 적용을 통해 축산냄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어려운 농가는 이전 철거 보상을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등 앞서가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주민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리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축산냄새를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조혜영기자

“경기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냐. 대응 역량 강화해야”

오병권 행정1부지사, 24일 도청에서 관련 실·국장 회의 개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제1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진 방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강진 발생과 관련해 현행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추진현황, 지진 발생 시 운영되는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책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현재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수도시설 등 33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내진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1988년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으로 설정된 후 점점 기준이 강화돼 과거 구축된 일부 시설물 등의 내진 성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총 6천686개 공공시설물 가운데 5천225개(전체 78.1%)가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141개를 추가 확보

하는 등 2030년까지 내진 성능 확보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견폐·용적률 완화(최대 10%),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등 인센티브로 내진 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재비축물자는 현재 구급 장비 등 134개 품목 118만 개를 비축한 가운데 광역방재 거점센터(여주시)와 방재 비축창고 66개소를 통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 밖에도 학교 등 지진 옥외 대피장소 1천865개소(주민등록인구 대비 수용률 158%) 가운데 수용률 100% 미만 시·군들에 연내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154개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평시에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진·지진해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숙지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주요 임무별 주



관부서장 중심의 지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단계별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10년 우리나라 내 지진 발생 현황 및 추이를 보면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큰 규모의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함께하겠다”

이재준 시장, 관내 대학 입학식에서 수원시 청년정책 소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관내 대학 신입생들에게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아주대·경기대 수원캠퍼스 신입생 입학식, 24일에 열린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입학식을 잇달아 찾아 입학 축하했다. 아주대와 경기대에서는 수원시 청년정책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함께 하겠다”며 “청년 여러분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5%가 ‘취업과 일자리’가 고민이라고 답했다”라며 “수원시는 청년 해의 취업 지원,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펼쳐 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57개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 사업은 ▲취업준비 청년 면접장 무료 대여 ▲대·소규모 일자리박람회 ▲청년 행정체험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 등이 있고, 주거 분야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주택 5000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청년·신혼희망터치 보증금 지원 등이다.

복지·문화 분야 사업은 ▲대학생 문화기획단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센터 ▲청년기본소득지급 등이고, 참여·권리 분야 사업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운영, 청년협의체 운영 등이 있다.

이재준 시장은 “저도 20여 년 전에 시골에서 올라와 수원에서 대학 생활



을 하며 수원의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꿈꾸고, 계속해서 도전했다”며 “수원시는 신입생 여러분이 꿈

꾸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신년인사회 성황리 마무리... 안양 31개동 돌며 시민의견 청취



주차·재건축·소음 등 건의사항 300여건 접수 “시민들의 구체적 요구 경청...시정에 적극 반영”

최대호 안양시장이 한 달여간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신년 인사회를 마무리했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달 26일 안양1동을 시작으로 이달 23일 안양8동까지 총 31개동을 돌며 노인회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아파트 주민대표, 주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살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과 어린이집 공연, 태권도, 동 우수사례 발표 및 대화의 시

간으로 구성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활동 기회가 많지 않았던 시민들이신년인사회에 많이 참석해 응답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시민들과 주차, 보행환경 개선, 재개발 및 재건축, 노인복지시설, 소음, 공원 및 도서관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며, 이와 관련한 300여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시민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최대한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 시민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열심히 경청했다”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안양의 50년 성장을 뛰어넘어 비상하는 한 해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총 예산 105억 원,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 확대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69억원 보다 150% 늘어난 총 105억 원으로 총 3,031대를 지원하는 규모이다.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관내 운행 중인 5등급 경유차량은 13,733대, 4등급은 이보다 1.5배 많은 19,410대로 노후경유차 잔존 물량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세부적으로는 5등급과 4등급 경유

차량 조기폐차 2,445대, 지게차와 굴착기 435대, 저감장치 61대, 엔진 교체 15대, LPG 화물 신차 75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800만 원까지, 3.5톤 이상 7,500cc 초과는 7,800만 원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관내 거주 또는 관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

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유차,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므로 노후 경유차 소유주



께서는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평택시 팽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평택시 팽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홍보 활동은 유동 인구가 많은 안정리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2인 1조로 홍보 전단지과 물품을 전달했으며, 상점·약국·병원 등을 방문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팽성읍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65) 홍보 전단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문

에 부착하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어도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앞으로는 복지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영택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유종복 팽성읍장은 “공적 분야 중심의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지역 기반의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

계층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질병·채무·고용·채납 등의 위기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복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문자나 이메일로 먼저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우리가 구석구석 알려드립니다!

- 도청신도시 SNS 홍보기자단 올해부터 첫 운영, 24일 발대식 가져
- 신도시 주민들이 직접 홍보활동에 나서 효과 기대

경북도가 도청 신도시를 홍보할 '신도시를 보여줘! 제1기 SNS기자단'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모집을 통해 선발된 SNS기자단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10명으로 구성되며 24일 도청 사립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자단은 올 한 해 신도시 주요 명소와 상가 소개 및 신도시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취재 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취재 후 작성한 내용은 텍스트,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개인 운영 SNS채널에 매일 게시하며 개성 넘치고 짜임새 있는 콘텐츠는 신도시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엔 선정된 기자단은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로 구성된 다양한 세대의 관심사를 아우르는 콘텐츠

를 제작하고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발대식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신도시에 애정을 갖고 홍보하는 만큼 진정성 있고 지역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자단 활동에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인정 넘치는 명품 스마트 도시 만들기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격려했다.

기자단은 "이번 활동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신도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1단계 행정타운 조성이 마무리된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도시 활화를 위한 2단계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물놀이 시설과 캠핑



장 등을 포함한 주민 여가시설이 종기에는 32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박차'

- 국가산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 대비 배수지 확장...84억원 투입
- 노후된 가흥정수장 개량해 수돗물 수요량 사전 대비...470억원
- 수돗물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위해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83억원)



경북 영주시가 올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 24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모 선정(가흥정수장 개량사업) ▲2023년 상반기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가흥정수장-풍기정수장 유수율 10% 이상 증가 ▲평면면 금강·천본지구 배수관로 확장 ▲원인자부담금 단가 현실화로 재정 안정성 강화 등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첨단배어령국가산단 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적기 용수 공급과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된 가흥정수장 개량을 위해 총사업비 47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완공예과시설을 급속여과시설로 개선, 증가하는 수돗물 수요량을 사전에 대비해 올해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총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첨단배어령국가산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수요량 증가에 대비해 추가취수원 확보(Q=8,000㎡/일)방안도 수립해 도시 확장에 대비해 상수도 시설기준보다 용량이 부족한 '영주배수지'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상반기 착수하고 총사업비 84억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원수 취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 측정·관리 위한 통합시스템 청사를 신축해 물 절약과 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시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가흥정수장 부지내 신축하는 수도사업소 청사는 총사업비 83억원을 들여 올해 공모를 거쳐 2024년 준공, 비상사태 발생에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1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시가지 노후관 상수관망 정비,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2024년까지 완료하고, 사업대상지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120억을 투입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평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중 금강·천본지구 사업을 1분기 완료, 상반기 374가구 상수도 공급에 나선다. 오운·지곡지구는 안동과 물공급협약 체결 후 올해 하반기 376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속적인 노후관 개체사업, 블록 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며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공공 상수도 시설 운영으로 시민 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달콤, 아삭한 경산 '맛난 참외'... 올해 첫 출하

뛰어난 맛과 품질로 경산시의 봄철 대표 작물로 유명한 참외가 24일, 박성경 농가(판매장 26번)에서 울산공판장으로 첫 출하 된다. 첫 출하 물량은 10kg 기준 20상자 정도로 많지는 않으나, 평년 대비 가격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산 맛난 참외는 압량용 현홍리, 금구리 등 참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41 농가 36ha 정도 재배되고 있다. 매년 2월 20일경 울산공판장으로 첫 출하 되는데, 올해는 유독 촉촉하고 길어진 이상 저온으로 초기 생육이 더뎠다. 출하가 평년 대비 7일 정도 늦다. 하지만 일부 조기 수확되는 3-4 농가에서 적은 물량이지만, 개별 판매장에서 소포장해 지난 17일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올해 유독 길고 추운 겨울 탓에 평년과 대비했을 때 과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인 수경과 착과 등 작황이 양호해 경산 맛난 참외 특유의 뛰어난 맛과 향은 겨우내 달콤한 참외 출하를 기다린 소비자의 발길을 재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경산 맛난 참외는 11월 말경 정식을 시작으로 3월 초부터 본격 출하될 전망이다. 24일 현재 가락시장 평균 가격은 10kg 상자 특품 기준 77,000원 선으로 주초 10만원 선에 비해 평균 가격이 많이 하락했으나, 전년 6만원 보다 30% 정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겨울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2월 출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현재 참외단지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플러스 품종을 재배하고, 수정은 벌을 통한 자연수정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데, 관행 재배 참외보다 맛과 향기, 당도가 높고 과육이 연해 아삭한 맛이 일품으로 지역 농가의 주 소득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는 "이상기후와 경영비 상승,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경산 맛난 참외의 첫 출하는 경산 명품 참외의 우수성 홍보에 큰 의미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경산 맛난 참외 브랜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의지를 밝혔다.

송광삼기자



의성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평가 최우수 선정

의성군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의성노인복지관과 금성노인복지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성·금성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노인복지관 211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시설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총 6개 분야를 평가하였으며 의성·금성노인복지관은 6개 영역 모두 A등급을 획득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김중수 의성군수는 "지역 내 어르신



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노인복지관 직원들의 노고와 도움 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대구교통공사 경영진, 3호선 전동차 안전설비 현장 점검

3호선 운행관리원 교육생들과 함께 스파이럴 슈트, 비상건넌판 대피훈련 직접 참여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2일(수), 3호선 경전철차량기지사업소에서 사장을 비롯한 간부 10여명이 3호선 운행관리원 교육생들과 함께 승객 안전 확보 및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설비 현장 점검과 대피훈련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경영진은 화재발생 시 스파이럴 슈트 및 비상건넌판을 이용한 대피 훈련을 직접 체험했으며, 이례 사태 발생 시 구원연결 훈련과 소화 설비 분사 시범도 참관했다. 또한 전동차에 이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3호선 전동차 소화 설비는 부



품 국산화 개발을 통해 예산절감이라는 경영 혁신 달성과 부품 수급 안정화로 유지 보수가 원활하도록 개선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설물 안전점검과 위기 상황 시 대피훈련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노인가장세대 600가구 난방비 긴급 지원

- 취약계층 노인가장세대 세대 당 4만원씩 긴급 지원
- 장충남 군수, 발빠른 행보로 난방비 폭등에 어려움 겪는 세대 지원

남해군은 난방비 폭등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관내 노인 가정 600세대에 세대 당 4만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남해군은 최근 고물가로 인한 난방비 인상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지역 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난방비를 지원받는 대상가구는 지난해 난방비를 지원받은 취약가구로,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기존 가

구당 연간 6만원에서 10만원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난방비 지원 외에도 관내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준기자



청도교육지원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연수회



경북청도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목), 청사내 3층 대회의실에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23명 대상으로 2023년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 강사 연수회를 가졌다.

청도교육지원청은 3월부터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확보가 어려운 관내 초, 중학교 17개교에 웹툰, 로봇과학, 코딩, 영어회화, 사물놀이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13개 프로그램, 총 40개 과정을 지원한다.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가 우수강사 확보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단위에서 우수 강사를 확보해,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 순회 강사제를 운영함으로써 방과후학

교 운영의 활성화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업무 개선 사업이다.

이번 연수는 우선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마인드를 확립하였고, 이어서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에 대한 안내와 함께 안전교육, 아동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 순회강사 기본소양교육 등의 순서로 순회강사로서의 자세를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재 교육장은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동시에 교원 업무경감도 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취약 계층 삶의 질 향상 위해
- 영양군, 5억2천여만원 투입 지붕개량(135개 동) 사업 추진
- 오도창 영양군수, 발빠른 행보로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해



영양군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올해 5억2천여만원을 들여 주택 115동, 비주택(축사, 창고 등) 10동, 지붕개량 10동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철거시 동당 최대 352만원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비주택(축사, 창고 등)은 200㎡이하의 면적에 한해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30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은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들은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 영양군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농업 대전환 주도할 여성농업인 리더 힘찬 출발!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이·취임식, 제17대 김숙자 회장(고령) 취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3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회 제16·17대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제17대 김숙자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임원, 농업인단체대표 및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진희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이임 임원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임원들을 축하했다.

제17대 회장으로는 고령 출신 김숙자 회장이 취임했으며, 특히 이임하는 이진희 회장은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에 당선됐다.

제17대 임원진은 수석부회장 홍말순(영주), 정책부회장 이지남(영덕), 사업부회장 구신숙(영천), 홍보부회장 박병애(구미), 감사 허순이(상주), 이미숙(포항)으로 구성돼 2년 임기를

함께 한다.

김숙자 신임회장은 한국생활개선도령군연합회장을 역임했고, 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을 거치면서 항상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생활개선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숙자 신임 회장은 "농촌여성도 농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혁신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것"이라며 "농업의 밝은 앞날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성농업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새로운 제17대 임원진을 축하하고 지난 4년 동안 도연합회를 이끌어 온 이진희 회장과 제16대 임원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65년 전통을 지닌 생활개선회가 여성농업인의 리더로서 경북농업의 판을 바꾸는 '농업대전환 프로젝트'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생활개선경상북도연합



회는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발족한 이래 65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경북농업을 선도

하는 여성농업인단체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23개 시군 1만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2023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중반기 정기대관 공고

대구 소재 공연예술 분야 예술가·단체 대상 정기대관 접수

(재)대구문화예술회관(원장 김정길)이 운영하는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은 공연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3월 28일(화)부터 4월 6일(목)까지 2023년 중반기(5~8월)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

중반기 정기대관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간이며 무용, 음악, 연극, 뮤지컬, 전통, 다원 등 공연 연습, 최종 리허설 및 쇼케이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관 동안 대규모 공연 연습이 가능한 대연습실 1개 실, 연극·무용·음악 등 다 장르 연습이 가능한 중연습실 3개 실, 소연습실 1개 실 그리고 실제 공연장과 같은 실감 나는 환경에서 공연 연습 및 제작발표(리허설, 쇼케이스 등)가 가능한 '대명홀'을 이용할 수 있다.

대관시간은 오전(10~13시), 오후(14~17시), 저녁(18~22시), 하루 3타임으로 운영되며, 대관료는 1타임 기준 대명홀 1만5천원, 대



연습실 2만원, 중연습실 1만원, 소연습실 5천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남구 대명동 대명공연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 2, 3호선 이용 시 도보로 10분 거리로 사용자들의 이동이 편리하고 접근성도 탁월하다.

대관 신청은 3월 28일(화)부터 4월 6일(목)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dgca.or.kr)와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홈페이지(www.dgpf.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dgperform@naver.com)로 접수하면 되며, 정기대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젊은 인재가 IT·물융합을 위해 대구에 모인다!

대구시는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산업클러스터 내 물관리특성화대학원 '물·IT융합학과' 설립에 관한 4차 업무협약(대구시-환경부-경북대-한국환경공단)을 2월 23일 오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은 경북대학교가 주관하고 영남대·UNIST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계약학과로, 올해 3월 첫 개강 후 매년 석·박사 1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국가물관리 정책이해 및 최신 물관리 기술 습득 등의 전문교육을 받게 되며, 올해 첫 신입생으로 박사 과정 19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연간 3건 이상 수행되는 산·학프로젝트를 필수과정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연구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한 번에 습득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향후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0여 개 기업에 실무형 전문가로 참여하거나 채용될 수 있고, 우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에서는 매년 7억 원씩 5년간 총 3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환경부에서는 인력양성 계획 및 국가차원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대구시는 기술개발 실증화시설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실증화시설 및 실험실의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맡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즉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며, "기업에는 인재들, 학생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모범적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위해 베트남 방문

- 베트남 하남성과 MOU협약 갱신 및 박린성 프선시와 실무협의 진행
- 4월부터 근로자 500명 도입

봉화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3일에 걸쳐 베트남 두 개 지자체를 방문하고 오는 4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5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남성과 우호 교류를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3년간 128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봉화를 찾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에 군은 지난 22일 베트남 하남성을 방문해 그간 유지해 온 계절근로자 MOU협약을 갱신하고 적기에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 내 근로자의 선발 과정과 행정절차를 점검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제 정세에 대비해 다양한 인력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봉화군과 함께 베트남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박린성 프선시와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향후 세부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프선시 근로자도 국내로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588명으로 지난해 104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농작업 현장에 배치되게 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웠던 농촌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장달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봉화군 농촌인력 해소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불어 공공형농촌일자리중개센터 사업 추진으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공직자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에 올인

- 2.23 ~ 2.24 간 공직자 80명 대상, 전문강사 강의와 팀별 보고서 작성 등
- 김성학부시장, "공모사업 지자체 전략과제로 도전과 노력으로 성과 거둬야"



경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에서 24일까지 양일간 화랑마을에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책 환경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정부 공모사업의 전략적 이해와 지역 현안을 대상으로 실정에 맞는 신규 공모과제를 발굴하는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문강사와 함께 ▲정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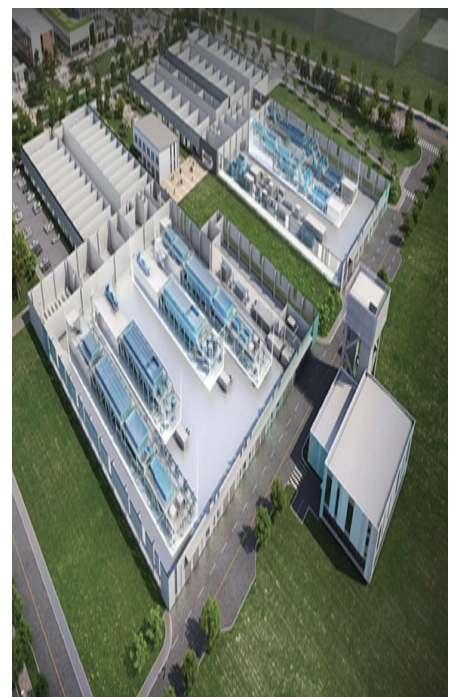
산 분석과 공모사업 대응방안 ▲신규사업 전략발굴 방안 ▲균형발전 우수 사례 사례 발표 등의 주제로 다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정부 각 부처별 주요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모사업 선정 기법과 국비 확보 방안을 개발하는 실무교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터득했다. 또 강의 후 팀당 8명씩 5개조로 나눠 조별 대표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에서 대응역량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김성학 부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도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70개 사업에 국비 4430억 원을 확보해 미래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윤태용/기자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D-100일 기념행사

- 100일 카운트다운... '육상 스포츠 도시 예천' 준비 태세 돌입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예천스타디움에서 대회 D-100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조직위원회 임원, 집행·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그간의 준비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D-100일 카운트다운 제작식과 함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세리머니가 펼쳐졌으며 이번 대회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예천스타디움도 견학했다.

설치가 완료된 초대형 LED 전광판과 오는 4월 준공을 앞둔 조명타워를 둘러보며 국제대회에 걸맞은 우수한 시설과 함께 명실공히 육상 스포츠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예천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조직위원회는 잔여 일수표시기를 예천스타디움에 설치해 주민들 관심을 유도하고 남본사거리에는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홍보탑을 세울 계획이다.

김학동 조직위원장은 "제20회 아시아U20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해 육상 스포츠 도시 예천군의 역량을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겠다"며 "세계 육상의 주인공이 될 어린 선수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일간 계획에 맞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육상연맹이 주최하는 3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오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천스타디움 일원에서 45개국 1,500여명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영양교육지원청, 종합청렴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돼

- 이경 교육장, 최우수기관 선정 공을 직원들의 노력으로 돌려



경상북도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목) 14시, 경북도교육청 응비관에서 신규임용관리직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 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된 청렴도 평가는 지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이었던 구미, 고령교육지원청을 제외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청렴제감도 평가는 기관별 청렴제감도를 측정했고, 이 중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외부제감도, ▶청렴노력도 평가는 8개 지표를 서면으로 정성/정량 자체 평가하고, ▶외부적발 부패사건 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 평가를 감점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평가했다.

이와같이 지난 1년간에 걸쳐 ▲종합청렴도 평가 분야 결과, 시부는 문경교육지원청, 군부는 영양교육지원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분

야 결과, 시부는 안동교육지원청, 군부는 영양교육지원청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영양교육지원청은 경북도교육청 종합청렴도 부문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양개부문 모두에서 최우수기관으로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경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저희 영양교육청이 이처럼 큰 영광을 안은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 전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깨끗한 행정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자세로 "오로지 영양교육 발전에 혼신을 다해 온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한걸음의 부패없는 청렴 최우수지원청 수상의 자부심을 가진 영양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 손짓

손병복 군수 "대형 이벤트를 줄이고 저렴하게 대게를 맛보는데 주안

크루즈 여객선·요트 승선 등 체험 프로그램 다채

울진군 후포항 일원에서는 청정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맛보고 다양한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는 2023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한창이다.

지난 23일 시작해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 축하공연을 비롯해 울승 큰 줄당기기, 대게 노래자랑, 맨손 활어잡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관광객들이 낮은 가격으로 대게를 구매할 수 있는 대게 경매 체험행사도 진행되고 있

는데, 경매로 판매할 대게 물량을 예년보다 대폭 늘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대게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이색적인 체험행사로 후포와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크루즈 여객선에 승선하는 행사를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고, 요트를 타고 후포항을 출발해 등기산 스카이워크 앞 푸른 동해바다를 돌아보는 무료요트 승선체험 행사도 관광객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 외에도 붉은대게 상품 이벤트, 다리오 셰프와 함께하는 대게 요리교실, 기 줄다리기 참여행사 등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축제는 대형 이벤트를 줄이는 대신 관광객들이 보다 저렴하게 대게를 맛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즐거운 축제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희기자



경북교육청, 새로운 교육환경에 발맞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교사 대상 연수 등 실시 - 학생 주도로 계획·실행하고 성장하는 경북형 성장 지원 맞춤형 교육

경북교육청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도내 전 초등학교 3~6학년

을 대상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하는 경북형 성장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결정 및 선택권 확대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삶과 연계한 배움을 강화하고자 연간 15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도내 3~6학년 전 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해 30~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생의 흥미·관심을 반영한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계획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45명

으로 구성된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원단」은 2월 23일(목)~ 2월 24일(금) 양일간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가로써 교사 대상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공유 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해 도내 전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사례집은 2023학년도 학교·교사별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이 바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변화와 감염병 확산, 기후 환경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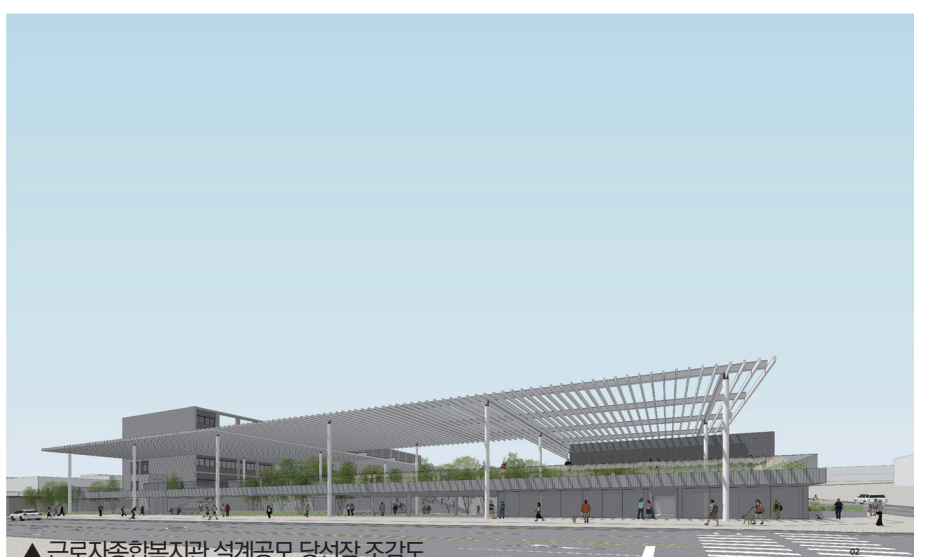
Healing Canopy (힐링캐노피) : 근로자의 쉼, 치유 그리고 여유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으로 '스마트 건축사사무소'의 작품 'Healing Canopy(힐링캐노피)'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경북도민과 근로자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향상을 위해 생활 편의·여가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국내 57개 팀이 참가 등록해 14개 팀이 공모 안을 제출했고, 지난 14일 기술심사, 21일 본심사를 거쳐 24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인 스마트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비롯해 입상작으로 2등 기단 건축사사무소, 3등 제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 4등 에이아이알 건축사사무소, 5등 건축사사무소 호안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결과에 따라 당선작에는 약 6억원의 실시설계 추진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2등~5등 작품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총 6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당선작 'Healing Canopy'는 쉼과 위로가 필요한 근로자들의 공간으로 단일건물의 폐쇄적인 형식을 지양하고 건립부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늘을 만드는 넓은 캐노피(루버지붕)가 특색 있는 건축물 분위기를 만들



▲근로자종합복지관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내부의 선큰마당(sunken garden)과 그늘마당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이벤트 공간 및 화합의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3월중 당선자와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건축 공사를 추진해 2025년말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일원 경산지식산업지구 4-6, 4-7블럭에 부지면적 11,842㎡, 연면

적 5,000㎡ 규모로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설계공모는 뜨거운 관심 속에 국내 우수 건축사가 다수 참가해 수준 높은 작품이 당선됐으며, 앞으로 다수의 공공건축분야 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남을 공공건축물이 우리 도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릉도 오징어 축제, 『제11회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수상

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등 축제경제 부문에서 돋보여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1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축제경제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광을 얻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2012년부터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축제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72명이 모여 지역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축제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축제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든 상이다.

참가 접수는 2022년 전국 지자체에서 온오프라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지난 1월 16일 수상 축제를 발표했으며, 울릉군오징어축제는 제주감귤박

람회, 춘천막국수달걀비축제 등과 함께 축제경제부문에서 첫 수상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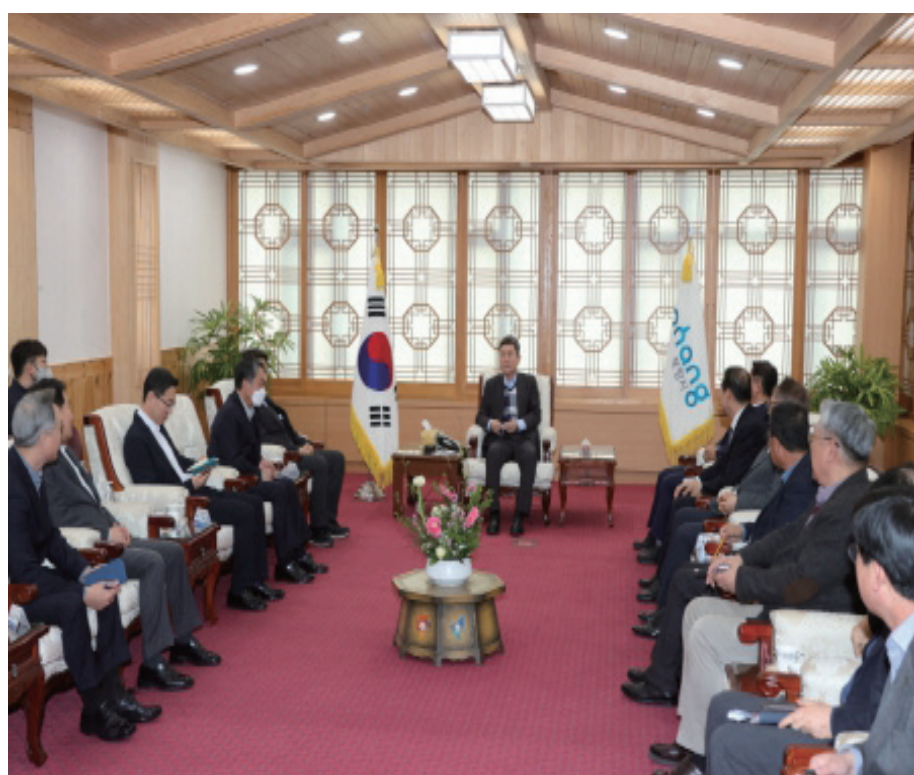
울릉도 오징어 축제는 2001년에 시작되어 올해 21주년을 맞이하는 울릉군의 대표 지역 축제로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개최되며, 오징어 맨손잡기, 몽돌쌓기대회, 전통때베퍼레이드, 해당길 걷기, 피맥(피데기&맥주)파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남한권 군수는 "올해는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와 함께 1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 새롭고 풍성한 축제를 만들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중·조장제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지속가능한 미래 포항을 위해 빈틈없는 대비 강조"

직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포항의 미래를 위해 사명감 갖고 노력해주길 당부



이강덕 포항시장은 24일 간부 공무원 회의의 주제를 "지속가능한 포항의 미래를 위해 지역 숙원사업 및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를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포항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인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빈틈없고 선제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복지,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총총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포항이 글로벌 이차전지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전환점이 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혁신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심점이 될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등 숙원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봄철을 맞아 산발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우수기에 대비해 하천 준설과 상·하수도 시설물 점검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세심하게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원 모두가 '투자유치 담당관'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긴밀한 기업 지원 체계를 갖춰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포항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는 직원들이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포항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욱 사명감을 갖고 항상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경남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특강

도, 도의회, 대학, 출자·출연기관 등 400여 명 참석

경상남도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24일 경남도청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방향과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경남도가 앞장서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고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최학범, 강용범 경상남도의회부의장을 비롯해 경남 도청 주요 위원회의 위원, 도 교육청, 시군, 도내 대학,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400여 명이 참석해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시대에 대한 경남도내 전 분야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강연에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경남 방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에 방점을 크게 두

고 있으며, 우동기 위원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굉장히 크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조성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경남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방향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현재 지역의 현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방향과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과제에 대한 우동기 위원장의 본격적인 강연이 이어졌다.

우동기 위원장은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지식과 정보, 대기업 본사 및 고차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등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중앙집권적이고 일관성 및 지속성이 미흡한 정책적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과 재정력 강화,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과제를 법령 정비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특강은 이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후 참석자들과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채택 이후, 경남도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내 유치 등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등 성공적인 지방시대 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장재현기자

부산 남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차량 홍보단이 달린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싣고 차량홍보단이 도로 곳곳을 달린다.

부산 남구는 24일 오후 1시 20분 용호별빛공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차량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4월초 BIE(국제박람회기구)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실사를 앞두고 홍보 조성을 위해 남구 전 관용차량이 홍보단 역할을 수행한다.

구청장 업무용 차량을 비롯해 총 82대의 차량이 투입되며 한글과 영문으로 된 유치기원 스티커 205개를 붙이고 시내 곳곳을 운행하면서 홍보한다.

관용차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눈에 많이 드러나는 장점이 있어 홍보효과가 높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2030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은 부산과 우리 남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

람회 부산 유치 바람과 염원을 담아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다"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송종진기자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겨울방학 프로그램 '큰 호우'

청송군은 진보면 출신 청년으로 구성된 진보청년연합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부터 7주간 진행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하는 주왕계곡 지질탐방로 탐방, 주왕산 화산폭발 체험, 신성리 공룡발자국 팔찌 만들기, 청송사과스콘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지역 어린이들이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옛날 청송에 화산이 폭발하고, 공룡도 살았던 것을 처음 알게 되면서 신기했다"며 "다음 방학에도 참여해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이규 진보청년연합회 회장은 "지역 아이들에게 뜻깊고 즐거운 겨울방학 추억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진보청년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들이 청송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관광도시 통영, 친절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통영시는 지난 23일부터 2일간 통영역 역사홍보관에서 통영시 시내버스 기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버스운전기사 친절과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다가오는 경남도민체전과 국제음악제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증가하는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대외적 이미지와 직결되는 버스기사들의 친절마인드 함양과 운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법 안내와 친절 역량강화를 위한 강연 순으로 진행했고 강연은 전 통영시 해양관광국장인 김상영 CS강사가 '친절! 관점을 바꾸면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강의에 나선 김상영 CS강사는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기법이나 갈등 발생 시 원만한 소통 방법을 적절한 사례나 표현을 통해 강의하는 등 유쾌한 진행으로 운수 종사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

았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교통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기사님들이 통영 관광의 첫인상이므로 친절할 안내와 서비스로 관광도시 통영의 위상을 높여 주길 바란다"며 "통영시도 운수업계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사천시,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 시행

사천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 건물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까지 참여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 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모집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모집 대수는 107대이며, 참여기준 중 감축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전송된 문자 URL에 등록하면 된다.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승합(12인승 이하) 차량이며, 소유자 기준 1대만 참여할 수 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26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 속 탄소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구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개별 가정이나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사용한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준기자

시는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절감하면 연간 최대 4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 분야는 단독·공동주택 거주자 대상인 개인 부문과 사업자·학교·아파트 단지가 대상인 상업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 부문은 연 최대 10만원까지, 상업 부문은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인과 상업 부문은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인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남원시, 농촌체험마을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추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통합 워크숍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남원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다.

23년 2월 23일에서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던 이번 선진지 견학은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통합 워크숍의 일환으로, 타 지역의 우수한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사례와 활동영역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마을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사무장의 실제 활동모습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마을활동을 위한 실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남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과 위원장 및 관계자,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 30인이 참여했다.

견학 장소는 농촌마을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 체험마을과 수미마을이다. 용문산 체험마을은 사무장의 활동영역이 넓고 계절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며, 수미마을은



마을의 자원인 빙어, 송어를 활용한 마을축제 개최로 우수마을 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는 마을이다.

참여자들은 마을의 특산품을 이용한 체험, 마을투어, 마을축제 견학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며 마을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무장활동 영역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

를 가졌다.

아울러 사업을 총괄했던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 소한명 사무국장은 "이번 워크숍 추진을 통해 사무장들과 농촌활동가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각각의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진안군 윤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재개장

동절기 휴장 마치고 3월 1일부터 재개장 나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동절기 휴장에 들어갔던 진안 윤일암반일암 구름다리가 오는 3월 1일 재개장한다.

24일 진안군에 따르면 봄을 맞아 군 관광명소인 윤일암반일암 구름다리를 재개장하기로 하고, 등산로 재정비 및 부대시설 보수 등 방문객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윤일암반일암 구름다리는 지난해 7월 개통식을 갖고 전국 각지에서 1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진안군을 넘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윤일암반일암 구름다리는 명도봉에서 명덕봉까지 220m 길이로 이어져 있으며 구름다리에서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윤일암반일암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보는 등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



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없고, 주차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11일~12일까지는 구름다리 인근인 윤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진안고원 고로쇠축제도 열려 관광객들이 맛과 멋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윤일암반일암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그 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주변 관광지인 운장산 등과 연계한 관광을 통해 천혜의 자연을 맘껏 누리는 멋진 기회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김제시, 『2023년 시민 소통·공감의 날』성황리에 마쳐

김제시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19개 읍면동에서 개최한 『2023년 시민 소통·공감의 날』이 시민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첫날 교월동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 백구면까지 하루에 2~3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지난해 읍면동 순회 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 건건이 추진사항을 보고했으며,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다.

정성주 시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면서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끌어올렸다. 특히,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 있다"라는 신념 하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건의 사항에 대해

서는 직접 건의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시민들은 "이전과 달리 지난 건의 사항 추진사항 보고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의 질문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답변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읍면동 순회 여정을 통해 현장에서 전해 들은 시민들의 진심어린 고견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시민들의 건의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현태/기자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전주 '조촌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전주시 조촌동이 주민들이 치매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내 번째 치매안심마을이 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조촌동을 네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초 보건소는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운영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소는 노인인구비율과 치매환자 비율이 높은 조촌동을 평화1동과 진북동, 평화2동에 이어 네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건소는 조촌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들을 상대로 조촌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치매안심마을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주민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 유관기관 협약, 치매안심가맹점(가게)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후 주민들에게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교육과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도움

물품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이에 필요한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조촌동 어르신들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완주군, 문화도시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도시

'공동체 문화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달려온 완주군이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도시에 선정되면서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입지를 재확인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 14조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2022년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했다.

이 평가에서 완주군은 2년 연속 최우수도시에 선정되면서 기본 사업비를 비롯해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3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1~3차 법정문화도시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역량, 협력역량 등 공통지표 4개 영역 13개의 공통지표와 비전과 전략, 거버넌스 구축, 문화진흥, 지역발전 등 5개 영역 13개 자율지표로 심의와 현장평가가 이뤄졌다.

완주군은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 지원사업의 심의와 선정주체가 되는 '완주문화배심원' 제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시민속의단-문화현장주민기획단 등 통합형 거버넌스 운영과 문화자치실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화도시 최초로 도농복합형 문화도시 사업모델을 구축하면서 극찬을 받았다.

완주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기존 문화사업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가 가진 지리적·시기적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구축과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리적 제약 및 도농복합형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로당, 마을회관과 공간을 연계한 '별별마을회관'사업과 '농한기 문화



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다.

문화활동의 지리적 제약극복을 위해 2022년 한해 완주문화도시가 조성한 '별별마을회관'은 28곳, '마을학교'는 15곳, 민간공간 공유를 통한 마을과 골목 문화 기반을 구축한 장소는 20곳에 이른다.

완주군은 시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농한기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그 결과 2022년 18개 사업에 27개 마을이 참여해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가 가장 높으나 문화활동지원이 전무했던 '농한기'를 마을문화활동이 가장 활성화되는 '문번기'로 바뀌는 혁신을 이뤘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도시의 경쟁력 제고,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과 만족도, 지속 정주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도시와 농촌이 만나 문화로 완성되는 도시, 문화로 정주하는 도시'를 이뤄냈다는 평을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년 연속 최우수도시 선정은 모두 군민들의 힘과 뜻,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도시로 완주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문화도시 완주가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건 모두 함께 해주신 군민들 덕분"이라며 "올 한해도 공동체문화도시 완주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많은 군민들이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광수/기자

'2023 익산방문의 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

익산시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봄맞이 관광객을 겨냥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25일 서울 용산역에서 익산관광브랜드 캐릭터 '마룡'이와 함께 익산여행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0일에도 여행객을 겨냥하여 기차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익산의 대표 봄 관광지를 알렸다.

익산의 대표적인 인스타 성지인 '아가페정원'을 홍보하며 상춘객들을 맞이할 봄꽃 소식을 전했다.

아가페정원은 봄을 맞아 채송화, 영산홍 철쭉 등을 비롯하여 봄꽃 맛이 준비가 한창이다. 유럽식정원인 포멀가든 끝에서 카메라를 꺼낸다면 색색의 꽃과 멀리 쪽 뺨은 메타세콰이어까지 한 컷에 나오는 SNS 업로드용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익산벚꽃명소도 함께 홍보했다. 왕궁리유적은 왕궁리 오층석탑과 함께 흐드러지는 벚꽃나무를 볼 수 있다. 만경강으로 꽃놀이를 간다면 만경강문화관광 산책코스, 자전거길까지 여러 코스로 꽃내음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내 대표 이색축제인 봄시즌 익산문화제야행(4월7일부터 4월9일)과 보석대축제(4월5일부터 4월16일)를 함께 알렸다.

시 관계자는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봄날에 익산에 오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란다"며 "'2023 익산방문의 해'를 기념해 봄맞이 여행시즌을 앞두고 더욱더 다채로운 문화행사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군산시 경관농업을 위한 화훼류 적응시험 첫발

군산시가 농업인들의 고부가가치농산품 육성개발을 위해 화훼류 시범재배를 추진한다.

시는 24일 새만금 인근 농경지를 이용한 화훼작물의 지역 적응성 및 경관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화훼류 시범재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자원을 활용해 아름다운 농촌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 농촌관광, 지역축제 등과 연계함으로써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형태의 경관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화훼 경관작물 재배를 위해 나리(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초화류 등 적응성 및 화중선발 재배 결과에 의한 화훼단지육성, 꽃문화 축제 등 다양한 원예자원 기반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대부분 나리재배는 종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 재배환경에 맞는 품종개발된 나리식재로 4~5월에 꽃을 보고, 10월 구근생산의 가능성을 실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응성실증을 통해 단계적 확대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군산시 화훼경관농업 육성을 위해 군산농업자원 융복합화 및 관광상품화로 농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글로벌 명품 축제 선정”

김성 장흥군수 “모든 세대 즐길 수 있는 젊은 축제 만들 것”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제11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3일 서울 더 케이 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가 주관한다.

글로벌 명품, 예술·전통, 관광, 경제, 콘텐츠, 프로그램 특별상 등 부문별로 우수한 지역축제들이 이번 시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2022~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2022년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처음으로 축제 기간을 2일 연장해 9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다.

안전관리와 방역대책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 기간 58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37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물축제는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지상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樂 풀파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임소문을 타며 해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진 축제다.

매년 행사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축제로도 알려져 있다.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등에 꾸준히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3년을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한 장흥군은 물축제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올해 물축제는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 여름축제”라며,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보다 활기차고 젊은 축제를 만들겠다” 말했다.

박재원/기자

김영록 지사, 베트남 빈프억성과 우호 협력 강화

농업·관광·투자·문화 등 다방면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 논의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과 베트남 빈프억성 농업·관광·투자·문화 등 전반에 대해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현지 시간) 빈프억성 인민회의 본부를 방문. 전 뒤에 히엔 성장, 베트남 진출 전남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빈프억성 교류협력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전 뒤에 히엔 성장이 전남도를 방문해 체결한 우호교류 의향서의 후속대책으로 이뤄졌다.

전 뒤에 히엔 성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전남 기업들과의 간담을 통해 두 지역 간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

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며 “앞으로 두 지역 교류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빈프억성은 캐슈넛, 커피 등 농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빈프억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 베트남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한 곳”이라며 “농업, 관광, 투자,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신뢰와 우정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베트남 빈프억성, 필리핀 팜팡가주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현지시간) 빈프억성 인민회의 본부를 방문. 전 뒤에 히엔 성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농업, 관광, 투자, 문화 등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광주광역시 지역대학 성장 돌파구 찾는다

장기정 시장 “지자체와 대학 협력...변화에 적극 대응”



광주광역시는 2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광주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를 열어 변화하는 교육부 정책방향과 지역대학 위기극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는 지역대학 위기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기구다.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교육감, 시의원, 광주지역 17개 대학 총장,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신청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전면 시행에

김병수/기자

완도군,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축구 관전 포인트

200만 전남 도민 화합의 스포츠 축제인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2023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군민과 관람객 등이 경기를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매주 종목별 경기 규칙과 관전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축구’로 장애인 축구는 일반 축구의 료를 그대로 적용한다. 경기 방식에 있어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시각(시력, 점막) 등 5종목으로 나눈다. 지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종목은 출전 선수를 11명, 뇌성마비 종목은 팀당 7명, 시각 장애인 축구 종목은 팀당 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각 축구(점막)는 일반 축구장보다 작은 세로 40m, 가로 20m 규격의 경기장에서 논을 가리고 실시되며, 공에는 특별히 내재된 음향 장치가 있는데 선수들이 공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선수들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축구 경기는(지적, 청각) 2023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고공생활체육공원에서 약 12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승자를 가린다.

참가 자격은 스포츠 등급 분류에 명시된 장애인 중에서 각 시·군별로 참가 신청을 마치고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참가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전남장애인체전 축구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예선부터 결승까지 연장 없이 승부차기 5승제를 결정한다. 경기 시간은 장애인 유형에 관계 없이 전후반 15분씩, 휴식 시간 10분으로 정해져 있으며, 팀 구성은 선수 8명(주전선수 5명, 후보 3명), 임원 2명(감독, 코치)이다.

경기가 시작되면 팀 벤치에는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감독, 코치, 수화 통역 요원, 자원봉사 요원 및 후보 선수 외에는 착석할 수 없다.

기타 사항으로는 참가 선수는 반바지와 양말,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 착용은 금지(스포츠 고글은 허용)이다. 세부 종목은 지적 장애인(IDD) 혼성 5인제, 청각 장애인(DB) 혼성 5인제, 시각 장애인(B2~B3) 혼성 5인제로 나뉘고 남녀 비를 제한이 없다. 지난 2022년 제30회 대회에서 지적 장애인(IDD) 단체전 1위 순천, 2위 광양, 3위 목포이며, 청각 장애인(DB) 단체전 1위 나주, 2위 장흥, 3위 여수 순으로 시상대에 올랐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대회 개최가 취소됐다. 제31회 대회에서는 전년도 대회 1위 순천시, 나주시의 2관왕 도전과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장흥군의 금메달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도 눈여겨 볼만한 관전 포인트이다. 개최지 완도군은 지적 장애인 단체전에 1개 팀이 참여하여 예선전에서 강호 광양시에 아쉽게 패하며 탈락했으나, 제31회 대회 개최지의 이점을 살려 좋은 성적을 기대해본다.

양영을/기자

나주시,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나주... 청년 패키지 지원책 수립

청년층 주거 안정,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근로여건 개선, 평생교육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인 ‘청년 패키지’ 사업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 패키지는 윤행대 시장이 전격반도체 산업 육성, 국·도립기관과의 공동체 협력과 더불어 2023년 새해 발표한 시정 3대 핵심 전략 중 하나다.

패키지는 취업 청년의 주거비 지원, 지역 특화사업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평생교육, 문화생활을 지원에 중점을 둔다.

시는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형 공동주택’을 무상 임대할 계획이다. 가족 동반 또는 취업거주는 ‘독립주택형’으로 맞춤형 공간을 별도로 제공한다.

우선 사회보장협의,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주거 지원에 나선다.

혁신산단 입주기업에게는 5인 이내에서 1인당 11개월 간 월 15만원의 임금을, 중위소득 150%이하 전·월세 주택 거주 근로 청년에게는 1년 간 월 10만원, 신혼부부는 2년 간 월 15만원을 각각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등 지역 주력·기반산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청년근로인력을 고용할 경우 최대 2년 간 200만원 이상 임금을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전환 시에는 1년 간 1000만원을 보낸다. 이러한 조건은 에너지신산업 성장 플랫폼 등 특화산업, 마을 단위 청년 활동가들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이 될 전망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의 경우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민·관 협력과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제공, 창업 지원에 힘쓴다.

목포대, 전남대(여수캠퍼스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등 4개 학과) 재학생 중 나주시역 취업자에게는 등록금 7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 내 가업 2세대 청년 창업자에게도 사업화자금(임차, 재료비), 창업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청년 창업자의 생존율을 높인다.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 청년 특화형 학습 활동에 대한 수강료 15만원을 모바일 지역 화폐로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직장인 대상 야간 강좌, 청년센터, 청년희망학교 등을 통해 여학생·취업·문화·예술·여가 취미 등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폭넓게 제공한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주거-일자리-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이 전략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취업 전 주어진 조건을 통해 안정적인 재직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다”며 “산업단지 기업들의 구인난도 해소하고 문화·여가 생활 지원을 통해 나주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화순군,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구북구 군수 “화순군민·관광객이 천변 거니는 모습 상상하면 가슴 두근거려...” 화순군은 2월 23일 14시에 하니움체육관 옆 화순천 고수부지에서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 착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은 총 123억 원을 투자해 화순천에 음악분수대 및 보도교 설치, 고수부지 꽃식재, 산책로정비를 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인 음악분수대, 보도교 설치 등은 올해 10월 말까지 완료, 2단계 산책로 정비, 고수부지 꽃식재 등은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 구북구 화순군수,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유기준 도의장, 임지락 도의원, 군의원 10여 명 등과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바쁜 국회 일정으로 불참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축선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투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7월 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고, 2022년 9월 실계를 착수 후 2022년 12월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1월 30일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의 주요 시설물인 음악분수대는 여수엑스포의 ‘BIG-O’쇼를 제작·설치한 회사가 참여해 공사할 예정이다. 길이 60m, 폭 10m, 최대 높이 50m의 음악분수대가 에어슈터 기능과 함께 여러 음악에 맞추어 춤추듯 물을 내뿜는 음악 분수쇼를 선사



할 예정이다.

또한 벌고천과 화순천 합류 지점에 화순천을 건널 수 있는 보도교량을 설치하고, 화순읍 삼천리에서 대리까지 화순천 고수부지에 꽃을 식재해 주민들이 화순천을 산책하며 몸과 마음에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낮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주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화순천이 되도록, 음악분수대는 화려한 분수용 조명과 분수 연출 기술의 최첨단 3D 노즐 장치를 통해 야간 음악분수쇼를 선사하며, 기존 나드리교와 신설되는 보도교에도 야간 경관 조명을 적용할 계획이다.

착공식에 참석한 구북구 화순군수는 “화순천에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쉼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관광하천·꽃

강길로 탈바꿈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화순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며, “화순군민과 관광객이 커피 한 잔 들고 시가지 화순천 고수부지에 꽃을 식재해 주민들이 화순천을 산책하며 몸과 마음에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은 “쾌청한 날씨가 민선 8기 구북구 군수의 1호 공약사업 착공식을 반기고 있다.

어느 도시든지 한강, 청계천 등 도심심을 가르는 하천을 잘 가꾸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명소가 됐는데, 우리 화순도 이제야 빛을 보게 됐다”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윤경호/기자

강원도, 도-시군자치행정소통 워크숍 개최

도-시군 자치행정부서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위한 '도-시군 자치행정부서 워크숍'이 2월 24일(금) 도 자치행정부서를 비롯한 18개 시군 자치행정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연구원에서 개최됐다.

2014년 안전자치행정국을 총무행정관으로 개편한 이래 도 자치행정부서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지난 해 10월 도 조직개편으로 행정국이 8년 만에 부활하면서 자치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금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군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즘 도 자치행정과 행보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자치행정분야 현안사항 시군 협조



이날 워크숍에서는 도 자치행정분야 현안문제에 대한 시·군 협조사항 논의와 특별자치시·도-시군 상호 상생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구축 및 활용 협조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활용한 도민 권익증진 협조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범도민 경축분위기 조성 협조 등이 논의됐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한 도-시군 자치행정부서 협력적 상생방안과 이에 따른 도-시군 공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역할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현존해도 자치행정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유지하는 최초의 사례로 시군과의 협력 없이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시·군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자치행정과가 특별자치시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영월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도내 1위

영월군이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광역 포함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도를 평가하여 각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25%인 61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영월군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동서강 수월레 프로젝트 추진, 교육 경쟁력 강화와 공동체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

업 등의 우수사례와,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추진 혁신과제, 현장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체감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직원들의 군민을 위한 혁신 의지와 노력으로 21년 보통에서 22년 우수등급으로 상향을 이루어냈으며 앞으로도 균정의 혁신으로 변화와 도약을 통한 살기 좋은 영월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서, 기관, 민·관 협업 추진 체계 구축 및 군민참여 확대와 주민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추진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3,460호 및 어가 190호 신청대상

양양군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농어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농어업인 수당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총 2,575백만 원(농업인 수당 2,442, 어업인 수당 133 / 도비 60%, 군비 40%)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등록을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이다.

수당은 농업인 가구 3,460호와 어업인 가구 190호를 대상으로 7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되며,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되고,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한다.

수당 신청은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수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어업인 수당은 양양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를 확정 후 7~8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어가가 누락되는 일 없이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987개 농가에 2,090백만 원, 143개 어가에 100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동원/기자

"오늘은 내가 레고 디자이너" 춘천시 레고랜드 사회공헌 사업 눈길

레고랜드 사회공헌사업 일환 기획...3회 추가 진행 예정

"오늘은 내가 레고 디자이너"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레고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춘천시 드림스타트는 23일 레고랜드 코리아리조트(이하 레고랜드)와 연계해 참여 아동 6명을 대상으로 '레고랜드 마스터 빌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레고랜드의 사회공헌사업인 '멀린 매직 월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는 레고랜드의 운영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인근 아동들을 레고랜드로 초청해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은 이날 3시간 동안 주니어 모델 빌더가 되어, 레고를 디자인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배우고, 나만의 개성이 담긴 레고 모델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2월 24일, 27일, 28일 추후 3회가 더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전액 레고랜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리조트 사



장은 "멀린 매직 월드 행사를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레고랜드 코리아는 춘천시 드림스타트와 함께 지역 내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교육, 문화,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어엿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동해시, 한·러·일 카페리 이스턴드림호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2022년 운송 화물량... 2021년 대비 87% 증가

동해시는 지난 2021년 3월 첫 취항한 한·러·일 주요 거점 항만을 운항하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가 지난해 동해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턴드림호는 2022년 한해 총 57항차를 운항하면서 컨테이너 560TEU, 중고차량 5,467대, 중장비 1,314대, 벌크화물 997T 등을 운송해 왔다.

이는 총 화물량 3,386TEU로 2021년 총 운송 화물량인 1,806TEU에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확인됐다.

수치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두원상선과 거래하는 화주, 포워더(물류주선업자)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나 동해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에만 117개 업체가 이스턴드림호를 통해 자동차, 중장비, 컨테이너 등 수출입을 통해 벌크 뿐 아니라, 복합 물류를 취급하는 항만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한-러간 여객운송이 재개되어 한해동안 12,597명이 이스턴드림호를 통해 동해와 러시아를 오가며 지역경제를 견인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도 불구하고 동해항 카페리가 전국 항만 최초로 제한적이나마 상호 여객운송을 재개하여 한-러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동해항의 인지도 상승은 물론 동해시 자체 주목도 또한 높아졌다.

특히, 두원상선은 지난해 항만 관련



비용으로 10억여원, 선박 수리 및 관리비로 6억여원, 선원 식자재 구매 등에 약 5천만원 이상을 사용하며 지역 내에서 총 19억여원 이상을 소비했으며, 연관 기업들과 부차적인 시너지까지 고려하면 매달 1.5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했다.

아울러 여객/화물 업무 증가로 인해 동해 본사에서는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취항 초기 4명이던 직원은 현재 12명까지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동해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원/기자

화천군, 군사지역에서 동화나라로 사방거리 경관 개선 완료

화천군, 산양평화지역 경관 조성사업 마무리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일명 '사방거리'가 산뜻한 새 옷을 입었다. 화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179억원을 투입해 시작된 산양리 경관개선사업이 올해 초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거미줄처럼 하늘을 뒤덮었던 전깃줄은 땅속으로 묻혔고, 밤이면 외출이 꺼려지던 골목마다 정겨운 메시지가 담긴 간접조명이 설치됐다.

마을 곳곳에는 깔끔한 벤치와 데크 등 주민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산양리 입구를 지키던 흉물스러운 전자방호벽에는 익살스러운 레고블럭 캐릭터들이 자리 잡았다.

오랫동안 달려있던 낡은 간판, 도로와 인접한 건축물의 입면은 현대식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화천군은 이 밖에도 마을안길 정비, 교량 경관개선, 가로등 설치 등을 완료했다.

여기에 DMZ 시네마와 실내 체육관, 상서종합문화센터를 비롯해 스크린 골프와 스크린 야구,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군장병 휴게쉼터까지 더해져 상서면 산양리는 '젊은 거리'로 탈바꿈 중이다.

화천군은 올해부터 사내면 사창리에서도 82억원이 투입되는 '사내 중심지 경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25년까지 보행친화거리 조성, 골목길 및 장터길 경관조성, 하천친수경관 조성, 하늘광장 및 테라스가든 조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산양리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마을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고, 외출 장병과 면회객들의 반응도 좋다"며 "사내면 경관개선 역시 꼼꼼히 진행해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조혜영/기자

더 밝아진 청주, 볼거리 가득한 청주!



청주시가 매력 있고 볼거리 가득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관 및 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완료한 '문의면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단조롭고 어두웠던 문의사거리에 활기찬 도로 경관을 연출했다.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들여 사인조명, 볼트리조명, 갈대조명 등을 설치해 문의면 진입부 인지성을 높이고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했다.

시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빛꽃 명소인 무심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청남교와 모충교 일원에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레이저조명, 달조명,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는 '무심천변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3월 말 준공 예정이다.

또한 청주시 도심에 가로지르는 무심천 교량에 미디어파사드,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는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해당 사업으로 생동감 있는 도심지 야간경관을 조성해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올해 추진 예정인 '상당산성 야간경관사업'은 성벽, 남문, 동장대, 산책로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상당산성의 우수함과 독창성을 드러내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교부 결정됐으며, 총사업비 30억 원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 추진 예정이다.

분평동 용평교 일원에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들여 시민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분평동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17억 원을 투입하는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해 문화제조창 일원에 문화적 정체성과 공예적 감성을 가미한 공공시설물, 휴게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경관사업과 디자인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충주시 조길형 시장, 질적으로 고도화된 문화도시 설계

조길형 충주시장이 문화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고도화에 나섰다.

조 시장은 23일 현안점검회의에서 "탄금대의 문화원 이전 시기에 맞춰 기존 시설의 우측국악당 활용 및 소유권 확보도 착각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사업 추진의 공백이 없게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탄금공원 현황에 대해 "공원 입구의 표지석이 완성되면서 탄금공원이 어엿한 새 이름으로 자리잡게 됐다"라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그 의미까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내비게이션, 표지판, 홈

페이지 등에도 해당 장소가 탄금공원으로 통일되게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루앙리 고분군·동량면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등에 대해 "우리가 가진 문화자산이 주민들 눈에 방치된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에 착수해 고유한 가치가 대외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조길형 시장은 "누차 이야기했듯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고도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기존의 자연, 시설, 사업들의 내실을 다지고 상호간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보은군, 유관기관 봄철 산불방지대책 회의 개최

보은군은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우경수 부군수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전국에서 많은 대형산불이 발생해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2건의 산불이 발생해 0.45ha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지만 봄철 농경지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성이 높고, 속리산국립공원 등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대부분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정화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한국의 빛, 도시문화융합경영대상 수상'

23일, 코리아CEO서밋 창립20주년 기념식 개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코리아CEO서밋이 선정하는 '한국의 빛, 도시문화융합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경영인 교육 및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국내 대표 CEO 그룹인 코리아CEO서밋은 23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 '한국의 빛, 도시문화융합경영대상' 수상자로 김영환 충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했다.

'한국의 빛, 도시문화융합경영대상'은 미래에 대한 창조적 사고를 통해 혁신적인 경영을 하는 행정가·기업인들에게 주는 상으로, 코리아CEO서밋은 해당 수상자들의 경영마인드가 글

로벌 경영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로 민선8기 7개월 만에 329개사 27조 2천 213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대한민국 신성장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대형호 다중규제 해제를 통한 레이카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 오송3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확대, 청주공항 활주로 확대 등 규제 혁파와 의료비후불제, 어찌다 못난이김치, 충북형 도시농부공급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충북의 혁신을 이끌어 본 상을 수여하게 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는 앞으로도 복합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충북도 핵심 현안 사업인 충북레이카파크 르네상스 완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집중한 국가산

단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박경귀 시장 "아산시-교육청 간 교육경비 원칙대로 재정립 합의... 충남도·15개 시군 지지 부탁"

23일 민선 8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 및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사업의 성격 및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고 밝히고,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지지와 협력을 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2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이 같은 아산시 사례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코로나19 등 고유의 업무만으로도 대규모 재원을 지속 투입해야 해 재정여력이 계속 고갈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줄었음에도 국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어 지방정부보다 사정이 낫다"면서 "충남 교육청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교육기금이 유보금으로 쌓여있음에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본질적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시·군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교육지원청과 그간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 재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으로,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비용은 원칙대로 교육청이 국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성과보고나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세금이 투입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과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2026년까지 3개 고등학교, 5개 중학교, 8개 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의 신설이 승인됐



거나, 승인 절차 중에 있다. 학교 신설에 따른 진입로 등 인프라 구축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비·교복비 지원 등 고유의 역할만으로도 교육 관련 예산 집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아산시의 사례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원칙에 맞는 교육지원 모델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박 시장의 발언에 "시·군 교육지원청이 개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 재정지원을 추가 요청하던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남도 역시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재정부담 주체를 구분하고, 교육 예산 부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

아산시는 이번 교육청과의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주제 재정립 작업으로 방과후 수업 지원 등 지방정부 담

당 교육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경귀 시장은 오는 4월 28일 열리는 '제62회 성용 이순신 축제'의 일정과 의미를 소개하고, 김태홍 지사와 15개 시장·군수들에게 개막식 참석 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성용 이순신 축제'는 충남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충무공이라는 위대한 콘텐츠를 가지고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면서 "4년만의 축제 재개를 앞두고 남해안 일대에 집중된 이순신 콘셉트의 축제와 다른, 역사와 품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순신 축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사님과 여러 시장, 군수님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예산군, 숙박시설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실시

예산군은 27일부터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예산군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추진하는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최근 예산시장은 오픈 한 달 만에 10만여명이 방문하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등 핫플레이스로 도약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관광객이 숙박시설 등 이용에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을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숙박업소 요금표 게시 및 게시 요금 준수 여부 △객실 청결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과도한 숙박 요금 인상 여부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변경 요구 등

이다. 이와 함께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업 객실 요금은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객실 요금은 접객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차 영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현재 숙박업소·음식점의 불편 사항 접수를 위해 '원스톱(ONE STOP) 신고센터'를 누리집에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군은 2023년은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꿈꾸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예산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며 "바가지 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역 숙박업 및 음식점 업주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자정하고 지역 및 관광발전을 위해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청양군, 3월 2일부터 청년수당 신청자 접수

청양군이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20대와 30대 중요 전환기를 맞은 군민의 자립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신청 시작일을 기준으로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 주민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5세(1997년생)와 35세(1987년생)인 청년이며, 지원 규모는 1인당 60만 원(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청 방법을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소식을 접하지 못하거나 접수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연말까지 상시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70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4%의 청년들이 사업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의 해당 청년들이 잊지 말고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A colorful graphic advertisement for the 'Cheongyang County Youth Love Youth Allowance' (청양군의 청년사랑 청년수당).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application period (March 2nd to 25th), eligibility criteria (residents for 3 years or more, or 10 years combined), and application locations (county and township offices). It also features a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inquiries.

경남FC 설기현 감독,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나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설기현 경남FC 감독이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나섰다.

2023시즌에도 경남과 동행을 이어갈 설기현 감독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경남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설 감독은 "경남FC를 이끌면서 제 2의 고향과 같은 경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며 "더 많은 분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서 마음의 고향인 경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을 응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최근 경남도 자체행정국 간부인사들도 기부행렬에 동참해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 고향을 비롯하여 학업·직업·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곳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 이내 전액,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



공된다. 더불어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기부자에게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경남사랑상품권과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대표 지역 특산물은 진주 장생도라지, 사천 꽃벙이한, 통영 훈제굴통조림세트, 의령 토요애한우, 창녕 우포늪쌀, 함양 방짜유기 등 지역의 우수 제품이 있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한국 축구 전설인 설기현 감독의 응원 메시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분이 경남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도 있다.

장재현/기자

강동화 전북도의원, 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 복리증진 기여 공로 인정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이 24일 진행된 2023년 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강동화 도의원이 과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이 낳아 기르기 행복한 전주시 만들기에 앞장서며 보육발전에 기여해왔고, 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강동화 도의원은 현재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라북도 보육 환경 개선 및 정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동화 도의원은 "지역사회의 보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금번 감사패 수상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관심과 열정을 다해 전라북도 보육정책 발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순창 동계면 출신 임규래 씨,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50년째 다양한 기부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순창출신 임규래(79)씨가 23일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한도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순창군 동계면이 고향인 임규래씨는 1974년부터 50년간 적십자 봉사원으로 현재까지 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임씨의 봉사정신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부인 이인례(77)씨를 비롯한 자녀들도 19년동안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기부금을 전달해 오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임규래 씨는 고향인 순창 동계(초·중·고)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각 사회 단체에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임규래 씨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사랑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고, 이러한 나눔 문화가 많이 전파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 순창을 위해 많은 향우들이 동참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순창에서 살아가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를 펼쳐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캄보디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현지 농업계고 건립 협약 이용광 꼴벌장학회 대표 전남대 박사과정 텐첸 토지 기부...내일 협약 "예상치 못한 어려움 있더라도 성공시킬 각오"



광주지역 봉사단체 꼴벌장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용광 대표가 캄보디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현지 농업전문고등학교 건립에 나섰다.

꼴벌장학회는 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오는 16일 오전 전남대 수의대 신축건물 3층에서 갖는다.

협약식은 현재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텐첸 씨가 캄보디아에 있는 자신의 토지 2ha를 꼴벌장학회에 기부하고 학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는 자리다.

이번 협약을 통해 꼴벌장학회는 학교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과 교실 건축분야에 참여하며 학교 설립에 관한 인·허가사항은 텐첸 박사 측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에서 학업중인 캄보디아 유학생들과 이번 사업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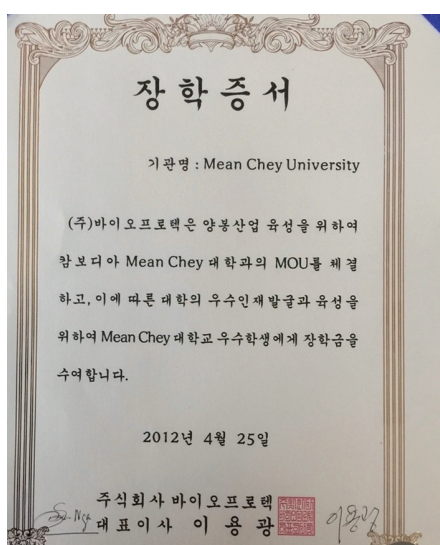
텐첸 박사는 꼴벌장학회가 장학금을 기부했던 캄보디아 맨짜이대학 졸업생으로, 당시 꼴벌장학금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을 계기로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꼴벌장학회는 캄보디아 최초

농업전문고등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용광 대표는 "캄보디아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지만 아직 농업전문기술고등학교는 전무한 실정이고 이 기회에 우리의 뜻이 이뤄진다면 좋은 의미의 교육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은 이 분야에 캄보디아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분야에 종사했던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우대해 현지 환경에 맞는 농법을 개발 전수할 경우, 캄보디아 최고의 농업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 사업은 대한민국 순수 민간 자원봉사 차원으로 추진되고 학교가 설립되면 한국어 과목과 지구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꼴벌 과목은 전교생이 꼭 이수해야하는 필수교과로 지정해 커리큘럼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일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나타나겠지만 꼭 도전해보고 싶고 이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처럼 그리고 웬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꼴벌장학회는 지난 2012년 당시 광주과학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주)바이오프로텍의 대표를 맡고 있던 이용광 씨를 중심으로 결성된 봉사단체다.

이 대표는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서 생산되던 제품의 주원료인 프로필리스를 연구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고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곳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귀띔했다.

이후 꼴벌장학회를 설립하고 2012년 4월 캄보디아 맨짜이대학과 꼴벌장학생 선발지원 협약을 통해 매년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 대표는 이후 뜻을 같이하는 지역민들과 함께 미얀마의 학교에 5년 동안 후원해 왔고 지난해 12월 후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 농업전문기술고등학교 설립을 계획했다.

이남출/기자



영양군
YEONGYANG-GUN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자

고향사랑기부금
(연500만원 한도)

영양군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액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답례품: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문의: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lovegohyang.go.kr

익산·전주시 상생 '맞손'...교류·협력체계 구축

경제·관광 등 각 분야 공동 사업 개발·정책 협력 강화

익산시와 전주시가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익산과 전주가 도내를 대표하는 관광거점인 만금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부터 교류 협력 분야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익산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지역은 전 분야에 걸쳐 공동 사업 개발은 물론 현안 공동 대응과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각 지역에 백제 역사·문화 자산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익산과 전주는 백제의 문화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익산은 무왕에 이르러 백제사 전면에 등장하고 왕궁리 유적 등으로 백제 시대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전주는 후백제의 도움으로써 백제의 명맥을 이어왔다.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해 지역의 거점 관광지를 연결하고 당일, 체류형 또는 테마별 맞춤형 코스를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이를 기점으로 경제, 교육 등 전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동반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이어 정현을 익산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과 활발한 교류를 위해 상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력을 얻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과 전주는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매우 각별한 지자체이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상생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진주시,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

진주시는 경상남도의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기업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진주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진주 보러 올래? 하모니' 사업을 추진해 6개 사회적경제기업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진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해 판로 부족과 낮은 인지도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온라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판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등 매년 약 7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광용기자

경북 중소기업 성장 위한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추진

경북도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과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경북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기업·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은 제품판매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그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경북은 디자인 전문기업이 부족하고 디자인 외주 비중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디자인전문기업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세부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을 위한 △전주기 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디자인 △마케팅 디자인 △웹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이 있고,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 패키지(비즈니스컨설팅, 디자인 상품제작, 비즈니스 매칭데이)가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

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모집하는 전주기 디자인 지원사업은 상품기획,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상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지역 중소 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과 제품디자인 전문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후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지역디자인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맞춤형 디자인개발 75건, 전주기 디자인개발 3건, 온라인 상세페이지 디자인 206건을 지원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 20건, 기업만족도 95%를 달성했고, 매출성장률도 20.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형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과 수요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바라며 앞으로 경북도의 디자인산업 진흥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2026년까지 1조 원규모 G-펀드 조성. '스타트업 천국' 만든다

김동연의 경제성장 양 날개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구축 발돋움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선언에 이은 G-펀드 비전 선포는 '투자유치'와 '투자제공'이라는 경기도 경제성장의 양 날개가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라운지에서 강성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진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마음껏(기업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가능한 부분에서 경기도가 함께하고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간섭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경제 어려움 때문에 약속했던 투자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G-펀드는 그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상생과 포용을 원칙으로 안전하고 충직한 사회망을 만들어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매직세탁에 물 조리가로 물을 뿌려 기업 투자의 새싹을 키우는 세리머니로 비전을 선포한 뒤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 조성을 통한 경기도 내 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참여홍보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판로확대, 경영지원 등 성장 지원 ▲도내 투자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확대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조 원대 G-펀드 조성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펀드 조성 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1999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총 21개 펀드 6,712억 원을 조성했으며, 청산된 펀드를 제외하고 현재 남은 것은 기술독립·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11개 펀드(정책펀드 9개·모펀드 2개) 4,702억 원을 운용 중이다. 4,702억 원 가운데 2026년까지 청산될 예정인 펀드 자금은 1,037억 원으로 도는 이를 제외하고 2026년이면 3,66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게 된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출자, 2026년까지 총 980억 원을 출자해 최소 6,700억 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980억 원 이외에 나머지 자금은 민간출자자금을 통해 조달된다. 이렇게 조성한 자금은 스타트업 펀드, 탄소중립펀드, 경기북부균형발전 펀드 등으로 구분돼 투자될 예정이다.

이처럼 도는 2026년까지 운용될 예정인 기존 3,665억 원 규모의 펀드와



새롭게 조성할 최소 6,700억 원을 더해 1조 원 이상의 G-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월 기존 정책펀드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G-펀드 운용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경기도형 모펀드'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펀드와 달리, 기존 정책펀드의 정산 회수금을 투자기금으로 적절히 안정적으로 출자와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까지 운용될 예정인 기존 3,665억 원 규모의 펀드는 청산 시 모펀드에 적립돼 계속 장기 운용되면서 미래·기반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된다.

6,7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되는 올해 경기도의 투자자금은 200억 원으로 지난해 110억 원에 비해 82% 확대됐다.

도는 2026년 300억원까지 매년 출자 규모를 늘려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운용 모태펀드가 2022년 5,200억 원에서 2023년 3,135억 원으로 40% 감축된 것과 상반되는 행보로 도의 투자 확대 의지를 보여준다.

조혜영기자

대전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 대전산단 디지털, 저탄소 산단으로 전환

2027년까지 646억 원 투입... 이장우 시장 "대전혁신성장 선도 산단으로 개조"

대전시는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와 함께 대전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전산업단지를 디지털, 저탄소 산단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이상래 대전시의회의장,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주요 입주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사업단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은 ▲스마트그린산단 소개 영상 상영 ▲대전스마트그린산단비전 및 추진계획 발표 ▲현판식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대전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대전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최용영 단장은 "디지털·친환경 기반 제조혁신으로 대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그린산단"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기반 조성 △에너지 자립화 및 친환경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5개년 7개 사업, 646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인



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은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중심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고 이에 더해 에너지 자립화 및 친환경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디지털화, 저탄소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단 입주기업의 공급 혁신 및 글로벌 탄소 규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창원산단, 반월·시화산단이 최초로 지정됐으며, 현재 대전산업단지를 포함하여 15개 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새롭게 변신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대전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산업단지는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환경 개선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대전시와 산·학·연·공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산업단지를 대전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전의 대표 산업단지로 새롭게 조성하자"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시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박차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8개

시군, 12개 일자리 사업 추진

충북도는 시, 군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공모를 진행하여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시, 군과 일자리 관계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

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공모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충북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는 취업연계 분야, 교육훈련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분야에 대해 청주시와 보은군, 단양군 등 8개 시, 군의 12개 사업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해 올해 약 7.7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신증년 디지털 고 취업연계사업, 디지털 기반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등 '취업

연계 사업', K뷰티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사업, 친환경 자동차산업 소재부품 생산인력양성 등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등이 있다.

지난해 선정된 사업 중 단양군의 '레포츠 전문가 양성과정'에서는 수상인명구조요원 훈련을 마친 수료생 중 4명이 사인암 유원지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며 물에 빠진 관광객들을 구조하여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며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접근성이 열악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

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3월 중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상·하반기 점검 및 연말 종합평가를 거쳐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병철 일자리정책과장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시,군 및 산업 현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영화 '대외비' 조진웅-이성민-김무열-원현준-김민재-이원태 감독, 3월 1일(수), 4일(토), 5일(일) 무대인사 확정!

"러닝타임 내내 뒤통수를 열얼하게 하는 반전의 연속!", "연기 미쳤다!" 등 언론의 호평 릴레이를 이끌며 3월 극장가의 흥행을 견인할 화제의 범죄드라마 '대외비'가 3월 1일(수), 4일(토), 5일(일) 서울 및 경기 지역 무대인사를 확정했다. [제공/배급: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감독: 이원태 | 출연: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1992년 부산,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운과 정치판의 숨은 실세 순태, 행동파 조폭 필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밀 문서를 손에 쥐고 판을 뒤집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범죄드라마 '대외비'가 3월 1일(수), 4일(토), 5일(일) 개봉일과 개봉주 주말 무대인사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번 무대인사에는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원현준, 김민재 배우부터 이원태 감독까지 '대외비'의 주역들이 극장을 찾아 관객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먼저 3월 1일(수)에는 조진웅, 원현준 배우와 이원태 감독이 메가박스 코엑스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메가박스 성수, CGV 왕십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4일(토)에는 조진웅, 이성민, 원현준, 김민재 배우와 이원태 감독이 롯데시네마 수원, CGV 수원, 메가박스 영통, CGV 오리, CGV 판교를 차례대로 찾아가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5일(일)에는 조진웅, 김무열, 원현준, 김민재 배우와 이원태 감독이 메가박스 더부티크 목동현대, CGV 영등포, 롯데시네마 영등포, 롯데시네마 홍대입구를 찾을 예정이며, 연이어 찾는 CGV 홍대와 메가박스 홍대 무대인사에는 조진웅, 원현준, 김민재 배우와 이원태 감독이 참석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3월 뒤집고 뒤집히는 예측불허의 재미를 선사할 영화 '대외비'의 무대인사는 극장별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팬 서비스를 선사하며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범죄드라마 '대외비'는 3월 1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정동희/기자



이보영X조성하X손나은 주연 '대행사', 25일 이민혁 가창 아홉 번째 OST '찬바람' 발매

가수 이민혁이 드라마 '대행사' OST의 아홉 번째 주자로 출격해 세밀한 감성을 더한다.

이민혁이 참여한 JTBC 토일드라마 '대행사' (연출 이창민 / 극본 송수한 / 제작 SLL / 제작 하우픽처스·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의 아홉 번째 OST '찬바람'이 25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찬바람'은 풍성함을 더해주는 스트링 편곡 속에 울조리는 듯한 멜로디가 진한 인상을 주는 발라드 곡으로 불안한 현실을 차디찬 바람에 묘사한 노랫말이 리스너들의 가슴을 울린다.

'찬바람'은 풍성함을 더해주는 스트링 편곡 속에 울조리는 듯한 멜로디가 진한 인상을 주는 발라드 곡으로 불안한 현실을 차디찬 바람에 묘사한 노랫말이 리스너들의 가슴을 울린다.

뿐만 아니라 세밀한 감정선과 포근한 보이스로 주인공의 심정을 대변하며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2016년 첫 싱글 '너와 나의 별 이야기'를 발표하며 데뷔한 이민혁은 프로듀서 새봄과 협업한 '취기를 빌려' '깊어지려나 보다' 등을 통해 대중에게 존재감을 어필했다. 이후 보컬리스트로서 독보적인 색채와 범접할 수 없는 감수성으로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중이다.

'고막 남친'으로 통할 만큼 독보적인 분위기를 지닌 이민혁은 '찬바람'을 통해 극의 쓸쓸한 분위기에 색다른 감성을 더하며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설득력을 보낼 계획이다.

'대행사'는 VC그룹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된 '고아인'이 최초로 넘어 최고의 위치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우아하게 처절한 광고인들의 전투극이다. 이번 주 토, 일요일 오후 10시 30분 JTBC에서 방송된다. 한편, 이민혁이 가창에 참여한 '대행사' OST '찬바람'은 25일 오후 6시부터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황지원/기자



비아이, 글로벌 EP 'L.O.L Part.1'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달성!



글로벌 아티스트 비아이(B.I)가 글로벌 EP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23일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에 따르면, 지난해 발매된 비아이의 글로벌 EP 'Love or Loved Part.1' (러브 오어 러브드 파트 원)의 전체 스트리밍 수가 1억 건을 돌파했다.

'Love or Loved Part.1'은 타이틀곡 'Keep me up (킵 미 업)'과 선공개곡 'BTBT'를 비롯해 'Middle with you (미들 위드 유)', 'Tangerine (젠타린)', 'Endless summer (엔드리스 서머)'까지 완성도 높은 총 5곡으로 구성된 앨범이다.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채로운 형태와 색깔로 그려내 5곡 모두 꾸준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BTBT'는 지난해 5월 선공개 싱글로 발매된 이후 스포티파이 양대

차트 중 하나이자 대표적인 소셜 지표인 '바이럴 50' 51개 지역 차트에 진입하며 비아이의 음악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선공개 싱글에 이어 본편인 'Love or Loved Part.1' 또한 15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고, 미국 그래미를 비롯한 주요 외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비아이는 올해 정규 2집과 더불어 글로벌 앨범 프로젝트 'Love or Loved'의 Part.2 앨범 발매를 예고하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비아이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에 또 어떤 호성적이 잇따를지 기대된다.

한편, 비아이는 오는 3월과 4월 아시아 6개 도시에서 2023 아시아 투어 'L.O.L THE HIDDEN STAGE (러브 오어 러브드 더 히든 스테이지)'를 개최한다.

최만식/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양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전북도 부동산 불법증개 점검, '깡통전세' 집중단속

전북도는 2월 27일부터 3주간 도내 증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별 자체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세 사기 등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증개 의뢰인이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증개를 하게끔 책임과 역할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자격 증개행

위, ▲증개사가 증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전세가율, 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 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목인, 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증개사업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올해 초 2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증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증개사업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윤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증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세사기 등 위험요소를 정확히 안내해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며, "도는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해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지하상가 관계 기관 화재예방 현장 지도

메트로센터(덕산동), 메트로프라자(봉산동) 현장 방문, 관계자 경각심 높여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이 24일 반월당 네거리 메트로센터 등 지하상가 2곳을 찾아 화재예방 지도에 나섰다.

이번 화재예방 지도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지하상가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본부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방안 논의, 기타 소방안전에 필요한 사항 지도·점검 등을 진행했다.

대구소방은 건축, 전기, 가스 등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3월 17일까지 지역 지하상가 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지하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평소 대비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대처에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청소년 유해환경 OUT"...봉화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나서

봉화군은 지난 22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한 미표시 등을 점검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업주들은 판매 전 반드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역문화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청소년팀·경찰서·청소년범죄예방위원·상담복지센터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변화가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기단속

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인천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증개사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증개한 공인증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동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증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보증사고 중 공인증개사가 증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증개한 공인증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된 공인증개사에 대한 증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증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증개사 및 증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하고, 증개업소를 방문하여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인증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증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증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증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증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증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증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 하면서, "전세사기 가담 공인증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증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단속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도, 수산물 원산지 단속 연 10회 추진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경상남도는 24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 수산물 원산지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수입 수산물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단속 행위의 적극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도내 시·군 수산물 원산지 담당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과 협업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본 이론과 함께 위반 단속절차 및 사례 등 평

소 단속현장에서 필요로 했던 내용 위주로 집중 교육했다.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산물 원산지는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위반행위는 소비자 불신 및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이력 확인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통신판매 수산물의 원산지 특별단속을 새로이

편성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추석 명절, 여름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특정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품목 등을 지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홍택 도 해양항만과장은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서도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현/기자

광명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광명시는 지난 23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12개 업소를 점검하고 계도했다.

시는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룸카페 2곳, 만화카페 3곳, 보드카페 5곳, 파티룸 1곳, 멀티방 1곳을 점검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된 업소 1곳을 적발하여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는 아니지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시설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내문'을 배포하여 계도했다. 최근 룸카페, 보드카페, 만화카페 등의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성행하면서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밀실·밀폐공간을 제공하고 침구 또는 시청 기자재를 설치하여 실제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신·변종 유해업소는 외관상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광명시 내 전체적인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도전합니다!

경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서울문화재단, '서울생활문화플랫폼' 서비스 운영 개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생활문화 동호회 찾기

자치구별 생활문화 정보를 '서울생활문화플랫폼'에서 일괄 제공... 24일 개시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생활문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서울생활문화플랫폼'을 24일부터 정식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동호회 등 생활문화활동을 위한 정보는 각 자치구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등 개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어 활동을 즐기거나 하는 수요자들은 각자 원하는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서울생활문화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생활문화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집과 일터 근처의 생활문화 동호회, 전문 강연, 대어 공간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플랫폼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자치구 단위로 생활문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컴퓨터 뿐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도 최적화되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 동호회와 생활문화 강사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사람', ▲ 지역별 생활문화 공간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공간', ▲ 자치구별 문화재단 등이 제공하는 강연과 행사의 정보를 모아놓은 '프로그램' 등 크게 세 가지 갈래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지역구별 정보는 25개 자치구 문화재단 및 구청에서 각 지역의 정보를 직접 등록하게 하여 보다 자세한 최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플랫폼 운영에 대해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생활문화플랫폼은 생활문화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공유될 수 있는 활발한 정보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문화 향유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접하여,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생활문화플랫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 우수 도자축제' 지원한다...총지원금 1억 3천 5백만 원

한국도자재단이 3월 17일까지 '경기도 지역 도자축제 지원 사업' 신청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우수 도자축제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이천도자기축제, 광주왕실도자축제, 여주도자기페스타, 용인고려백자축제 등 4개 축제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서 열리는 우수 도자축제에 공로일 기준 소재지가 경기도인 법인·단체 등 4개 축제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심사는 1차 서류 적격 여부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의 대면 심사로 진행되며 ▲축제 내용 ▲축제 운영 ▲지역 사회 기여도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

총지원금은 1억 3천 5백만 원으로

선정된 곳에는 축제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제작비, 재료비, 홍보비, 임차료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축제별 최대 3천 5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밖에 행사장 사용 협의, 축제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공모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문화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홍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도내 도예단체의 품격 있는 도자축제 개최를 도와 도자 문화산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도민의 도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케이-푸드 대표 축제 시동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국제행사로 확대 개최하기 위해 24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제29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준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박창구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관광·음식·축제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올해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유치 ▲MZ세대 입맛에 맞는 음식 개발 ▲민속놀이·체험·시식코너 확대 ▲야간 프로그램 개발 ▲제빵·전통주 별도 부스 제공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10월 6일부터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그동안 전담 22개 시군의 맛을 소개했던 것을 크게 보완해 20개 국 이상 주한대사관이 참여하는 세계미식관과 미식산업관 등을 선보인다. 이전과 달리 남도의 맛과 세계의 맛을 같이 맛보는 국제행사로서 차를 방진다.

또한 명인관에서는 남도음식명인 9명의 요리비법과 명인음식을 체험토록 하고, 남도 섬 음식 등 스페셜 전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2개 시군 으뜸음식 판매장터, 시군별 특산품, 도내 청년창업, 세계요리 판매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대표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통주 체험과, 남도 빵 만들기, 남도장터유एस(US)물과 아마존 수출 상류 품목 시식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계획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는 등 남도음식의 매력과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수차례 전문가회의를 통해 케이-푸드를 대표하는 국제적 음식축제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명/기자

수원의 한국전쟁 흔적을 담다

수원 구 부국원서 '한국전쟁: 기억의 파편' 전시회 개최

수원에서 있었던 한국 전쟁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수원 구 부국원에서 열린다.

수원시는 휴전 70주년과 수원시정연구원(수원학연구소)의 수원학 학술총서 ③ '한국전쟁: 그 기억의 파편을 모으다' 발간을 기념해 6월 30일까지 전시회 '한국전쟁: 기억의 파편'을 개최한다.

수원은 한국전쟁 동안 북한·중공군과 남한·유엔군이 4차례나 번갈아 가며 점령과 탈환을 반복했다.

전쟁 초기에는 한강 방어를 위한 남한·유엔 연합군 지휘 본부가 있었고 전쟁 중에는 수원비행장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수많은 전투와 폭격으로 수원화성을 비롯해 도시 대부분이 파괴됐고, 수원 사람들도 집을 떠나 피란을 가거나 목숨을 잃었다.

전쟁 후 수원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리고 수원에는 많은 피란민과 전쟁고아가 넘쳐났다. 아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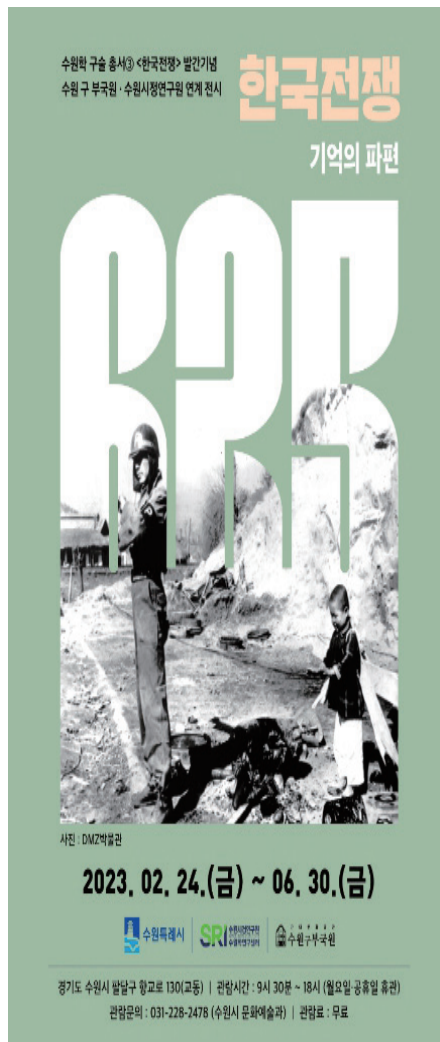
확성 성벽에는 수많은 총탄 자국이 남아 있다. 전쟁의 흔적과 함께 수원 사람의 상처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수원과 수원 비행장을 중심으로 긴박했던 전쟁 과정을 재구성한 영상에 상영된다. 또 전쟁 피해자와 당시 수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된다. 2부에서는 수원 사람들의 전쟁 기억을 영상·음성·사진으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전쟁을 보는 다양한 시선 가운데 온전한 수원 사람들의 시선으로 한국전쟁을 볼 수 있는 전시회"라며 "전쟁으로 인한 수원 시민의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고, 전쟁을 넘어 평화를 가기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요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공휴일은 휴관하며 수원 구 부국원의 주소는 팔달구 향교로 130이다.

조혜영/기자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축제 20주년 기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참가작 공모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제2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메인 오페라 참가작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20주년을 기념하고, 대구·경북 상생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공모는 오페라 제작 및 실연이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 중 대구나 경북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전막 오페라 제작 실적이 있는 단체들이 제작한 완전한 형태의 오페라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3월 16일 예정)를 거쳐 본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

은 제2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메인 오페라로서 축제 기간(10~11월) 동안 총 2회 공연될 예정이다. 선정 단체에게는 제작비 일부와 공연장 및 연습 공간, 축제 통합 홍보 및 인쇄물 제작이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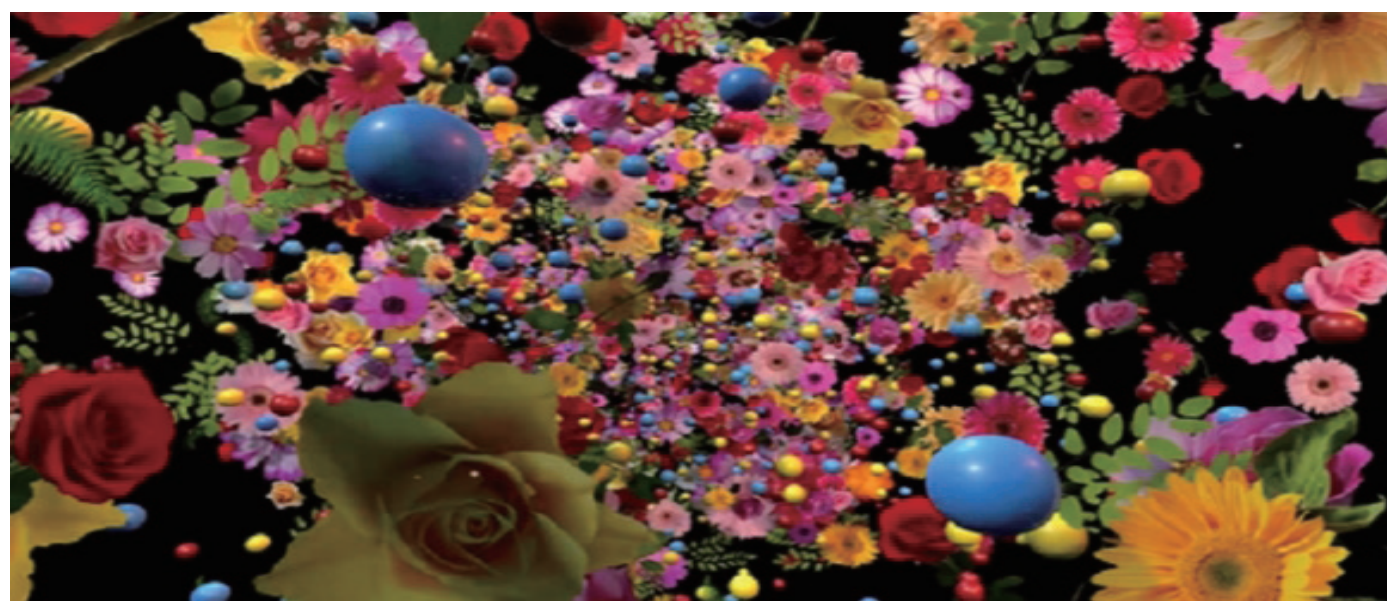
모집기한은 3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 공연했던 작품의 경우 공연 영상이나 공연 프로그램북(안내책자)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윤근수/기자



포항문화재단, 2023년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우수 전시 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김창겸 작가 '꽃들의 전진'

포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3년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우수한 전시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 유류 전시 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민의 시각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시기획·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운명이다. 멸종 위기 동물 예술로 hug' 전시는 팬데믹 사태 이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주제로, 인간과 생물의 다양성을 이루는 종들과 생태

계 균형을 이루는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예술로서 재조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됐다.

전시는 MZ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청색 사진과 분홍색 하트 아이콘으로 유명세를 끌고 있는 고상우 작가의 디지털 회화 작품을 비롯해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업으로 유명한 김창겸 작가, 자연 세계를 상징하는 동물 조각을 주로 다룬 금중기 작가 등 생태계 보존을 주제로 연결된 작품 총 11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는 예술작품에서 동물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살피기보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형상화하고 있는 지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의 작품세계

에 초점을 맞춘다. 출품작은 동물과 자연, 생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던지고, 그 복잡다단한 관계성을 각자의 작품 안에서 조망하며 관람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예술 활동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전시 의도에 맞게 관람객을 위한 작품 해설 프로그램과 더불어 고상우 작가의 드로잉 작업 방식을 모티브로 한 자연 보호 캠페인 체험도 제공할 계획이다.

포항문화재단 관계자는 "양질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2023년 안동윈터아트페스티벌

안동지역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안동겨울예술축제 '2023년 안동윈터아트페스티벌' 여덟 번째 순서인 '다이아몬드의 낭만가객(浪漫歌客)'이 28일 저녁 7시 30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에서 진행된다.

이태리어로 다이아몬드라는 뜻인 다이아몬드는 클래식을 전공한 남성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객 모두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소중하고자 클래식, 뮤지컬, 대중가요, 팝송 등 다양한 장르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크로스오버 단체이다.

이번 공연에는 낭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태리 가곡, 영화음악, 대중가요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감성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상태를 다이아몬드의 색깔로 표현하고자 한다.

남성 성악 특유의 중후함과 부드러운 표현하는 다이아몬드 음악 속에서 사랑, 추억, 이별 등으로 계층별 다양한 감정 낭만을 느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23년 안동윈터아트페스티벌 '다이아몬드의 낭만가객(浪漫歌客)'의 관람료는 전석 5,000원으로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박근중 칼럼]합계출산율 0.78명 충격, 미래 없는 한국 국정 전반 재설계를



박근중 작가·칼럼니스트 (현, 서울시자치기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뚝 떨어졌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3명대에서 2018년에 0.98명으로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1년 새 0.03명이 더 줄어 급기야 0.8명 밑으로 추락한 것이다.

2020년 출산율 0.8명대 국가가 된 지 불과 2년 만에 0.7명대로 내려가며 불명예 세계 기록을 또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반등은커녕 이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까지 추락했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9,000명에 그쳤다.

전년도 26만600명 보다 1만1,500명(-4.4%)이나 감소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5만 명'마저 무너진 것이다. 30년 전인 1992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을 만큼 속도가 가팔라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최악의 인구 쇼크가 덮였지만 속수무책이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뒤 실시한 모든 대책이 소용없다.

서울 한복판 초등학교까지 문을 닫고, 지방 대학은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소아과병원이 속속 폐업하고 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이다.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여년 전에는 50만~60만 명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절반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이대로 가면 청장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암울한 미래를 맞게 된다. 고령층 부양으로 등골이 휘는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더 기피하는 저출산의 악순환도 가속화될 것이다.

출산을 급락한 국가를 역동성을 잃고 쪼그라드는 '수축 사회'로 만든다. 총인구 감소, 학력 인구 급감, 경제와 납세 주력인 생산가능인구 급감, 병역자입 감소, 세수 감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 고갈, 노동력 감소와 각종 비용 상승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지역소멸 등이 모두 진행 중이거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미래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0여 년 이상 지속한 저출생(低出生)의 추세가 범국가적인 노력에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한국병(韓國病 |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지난해 12월 6일(현지 시각)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60년부터 후퇴하기 시작해 2075년이 되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에 뒤쳐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34개국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에 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육아 독박, 가사노동 부담, 양육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을 저하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7월 13일 남녀평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수치로 한 '젠더갭 지수(Gender Gap Index 2022)'를 발표했는데 조사한 146개국 중 한국은 99위에 그쳤고,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019년 기준 여성이 187분으로 남성 54분보다 133분 더 많아 무려 3배를 넘어서는 등 무수히 많은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공무원을 제외한 토래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육아 부담 걱정을 밥 먹듯 하고, 양가 부모의 도움은 필수적이고, 육아비용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도 요원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어린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가득한 사회를 '맘충(Mom + 蟲 | 엄마와 벌레의 합성어로 육아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 손가락질하는 세대는 이를 충분히 방증(傍證)하고도 남는다.

인구 문제는 이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의 인구감소 시대를 넘어 인구지진(Age quake)의 인구소멸 시대를 치달리며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무엇보다도 '아이 낳으면 돈 준다.'라는 단순한 퍼주기식의 근시안적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서는 절단코 안 된다. 특히 출생과 양육의 특정 시기에 국한한 일시적 현금 지원보다는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 대책이 화급하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주거 불안 해소 등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낙관을 심어줘야 한다. 여성과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없애고 의식·제도·관행의 혁신도 병행하여 서둘러 살펴야 한다.

이민청 신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대급 최저 출산율 해소를 위한 대책은 일자리·주거·육아·교육·이민 등 모든 국가 정책 전반을 출산·양육 친화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고 촘촘한 재설계를 통하여 국가 존망과 진운의 명운을 건 범국가적 총력전을 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에 인적·물적 자원을 과감하게 쏟아붓는 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저출산은 청년 세대의 비명'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두고 출산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발상을 전환하고 인식을 새롭게 해 아이 키우기가 어렵지 않고 살기 좋은 '매력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보육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교육비와 집값 부담을 줄이는 등 교육·거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부담이 줄어들고 희망이 되며 행복이 되는 사회 여건을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시스템이나 정책과 결별하고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회 격차'만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음은 통찰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서둘러 막아내야만 한다. 더불어 전반적 사회 제도와 시스템도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제로의 전환도 병행해야 한다.

“홍준표, 공정의 가치를 지닌 진솔한 정치인”

- 5선 국회의원, 2개 광역시 도지사·시장 출신의 거물 정치인
- 2030세대로부터 공정의 가치를 가진 시원시원한 정치인이라 평가
- “꿈은 이루어 진다. 특히 함께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

홍준표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제35대 대구광역시 시장이다. 그의 정치적인 스펙은 참으로 화려하다. 국회의원(5선), 경남도지사(2선), 원내대표, 19대 대선 후보,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역임한 거물 정치인으로 지난 2022년 대구광역시 시장에 당선돼 헌정 사상 최초로 민선만으로 경남·대구 3선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정치, 행정, 법, 등 모든 분야에 탁월한 분이다.

이에, 필자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에 이정표를 우뚝 세워가고 있는 그가 걸어온 발자취, 정치사에서 맹렬약 해온 점과 향후 그가 꿈꾸고 그리고 있는 미래 정치의 대해 살펴 봤다.

홍준표는 무학·문맹의 가정인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서동마을에서 태어나 학남초, 영남중, 영남고, 고려대 법과대학, 1982년 사법시험 합격, 정주, 부산·울산, 서울남부, 광주지검 검사, 안전기획부 국제범죄수사지도관으로 있다가 1995년 퇴직후 정계에 입문해 15~18, 21대 국회의원, 경남도지사(2선), 대통령 예비후보, 대구시장 등의 스펙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에 필자는 그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오면서도 「뭔가 하겠다는 꿈이 있었고, 꿈을 갖고 살아 와」 대한민국 대통령후보로 출마까지 한 소신의 정치인 홍준표의 발자취와 활말을 소신껏 얘기한 어록들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정치관을 살펴 봤다.

잘알다시피 그는 2030세대로부터 공정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이라 평가 받고 있다. 그들은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냉정한 세대로 정권 차원엔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향후 미래에 관심을 둔다. 이 둘이 겹쳐있어 30년 정치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손소리 마다하지 않는 홍시장을 도덕적이고 공정의 가치와 소신있는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으로 소중하고 있다.

그의 소신있는 철학은 사형제·사법고시 부활, 정치 100% 도입 등,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는

정치를 펼치며 공정의 가치를 위해 여제도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그는 5선국회의원, 3선광역자치단체장 등 그는 대한민국을 운영할 다양한 자산인 정치, 외교, 문화, 국방, 법률, 경제 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나다. 특히, 대한민국 자주국방에 대해 누구보다 필요함을 역설한다. 호시탐탐 침략야욕으로 우리 머리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당당하게 활말 하는 진정한 정치인이다.

이처럼 잘못된 일 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다보니 극우, 강성 이미지를 지닌 고집불통, 국민밀상, 흥트럼프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그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문하면서 ‘스스로를 독고다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에 필자는 그의 소신발언이 막말로 왜곡돼, 그의 큰 행보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옮겨 봤다. 2003년 5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마선언 중 “너 그러다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 없이 말이야”. 2011년 7월, 심화저축은행 불법자금 연루의혹 질문시 “꼴 같잖은 것들이 대들이 새 패버리고 싶다”. 2015년 5월, 특수활동비 형평 논란 반박에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2017년 8월, 페이스북에 ‘쇼(show)통정권. 쇼는 참 잘해요. 근대

나도 저런 좀 배워야겠어. 쇼통정권이 돼야죠. 쇼통정권은 아니죠’라고 말했다고, 지난 2021년 10월, 부산당원 간담회에서 “날 물어 뜯는 일부, 속뒤집혀”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막말 프레임으로 공격받을 때 그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또,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아바타 정치는 안 한다.”고 말하면서 거침없이 불의를 보여진 것이라든가 과감하게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다보니 속시원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의 대권 정치행보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대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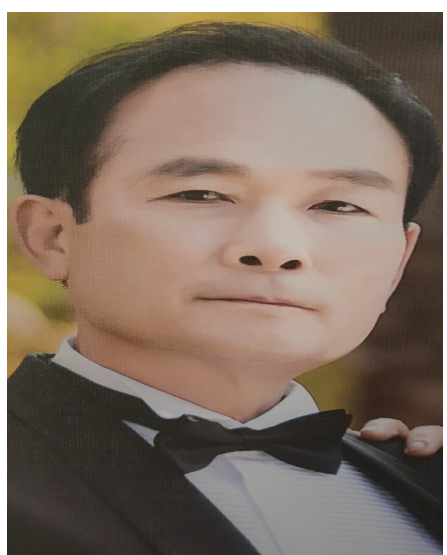
이처럼, 막말 논란의 도마위에 올라 있는 그이지만, 요즘 시셋 용어로 ‘거침없는 하이킥’처럼,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소신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은 위장평화회담” “78여년간 남북으로 갈려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한 현 상황하 우리가 살길은 자주국방”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돈으로 산 평화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미국이 북한인 ICBM까지 개발한 지금, 워싱턴 불바다를 각오하고 한국을 지킬까?” 북핵에 맞서 유사시 “나토식 핵공유”로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 연합군사훈련을 하자고 발표했고, 지난 1월, ‘핵’을 가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자신있는 어조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비하는 정치인이다.

또 2017년 3월, 19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서 막말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2018년 1월, 강적들에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안보는 아무리 조심하 해도 지나치지 않다”, 2021년 8월, 20개월 여아 이소박스 시신사건에 대해 “사형시켜야 한다”, 지난 2022년 8월, 국민의힘 이준석 前대표의 “선당후사에 대해 제 쓰린 맘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답답함·억울한 심정, 젊은 용기 이해하나 성숙하고 내공이 깊어야 한다, 왜 욕먹는지도 생각해 보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바탕 살풀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2월, “광상도 50억! 아들 보고 엄청난 돈졌을까? 왜 박근혜때 적용된 경제공공체 이론은 적용하지 않았나? 이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어찌 납득할까?”, “윤미향 사건! 정신대 할머니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검사도 소리쳤는데, 이게 오보냐 검사 무능이나” “요즘 판·검사는 셉러맨이 돼, 너무 보기 딱하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페이스북에서 “정적 제거설은 단일제 대통령엔 있을 수 없다”며 “유시민의 말은 설득력 없는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 “윤 대통령은 검사 때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법치주의를 천명해 왔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법치주의를 지켜왔다” “통상 대통령이 되면 정치주의자가 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며 “법치주의와 정치주의가 맞붙은 형국이지만 시대의 흐름이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또 지난 2월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증원, 의석수를 현행 보다 50석을 늘리자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참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라면서 “오히려 의석수를 반으로 줄



문화매일 지사장 윤근수

여 150석으로 하고 전원 미국식처럼 소선거구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정말 국민들 속이 시원한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홍준표란 정치인은 모든 일들이 정도와 이치에 맞지 않고 공정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든가 주저함이 없이 소신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진솔한 공정의 가치를 실천에 옮기는 정치인이다. 이런가닭에 미래 희망세대인 2030세대가 그를 좋아하고 지지해 보고 있다.

솔직히, 필자도 한때 그의 공정의 가치와 시원시원하게 소신의 정치를 펼치는 모습에서 그를 위한 밴드도 만들어 봤고, 현재 ‘대구발전포럼’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통령후보로까지 올라 설 수 있을 정도로 찬란한 꽃을 피워 갈 수 있었을까?를 그가 말한 여러 어록들을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지난 2017년 대통령 경선 후보시 그가 한 발언에 고스란히 묻어 있음을 엿볼 수 있어 이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는 “저의 아버 무학, 저의 어머니 문맹! 아버 40년 전, 어머니 20년 전 돌아가셨다. 나는 유산이 1원도 없다. 이런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 꿈이 있었고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다. 저는 돈 있는 대통령도 아니요 돈 쫓는 대통령도 아닌 꿈이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꿈 꾸고 맘대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제 인생의 멘토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김구 선생도 아닌 바로 낳아 준 엄마이다. 무지렁이처럼 살아 온 엄마지만 지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 하고, 가족 사랑하는 헌신적이신 분이였다. 내 인생의 마지막 꿈이 대통령이 돼, 내 엄마처럼 착한 사람 한명 잘 살게 해 줘 보자는 것이다.”라고 밝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절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낀다.”

못난 필자의 모친도 자식 자랑했는데, 모르긴해도 흥 시장의 모친께서는 “우리 준표 우리 준표”하며 얼마나 자랑 스러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새삼 진실성이 가슴에 깊이 와닿는다.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뭔가 하겠다는 꿈이 있었고, 꿈을 갖고 살아 왔고, 앞으로도 그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힘차게 질주해 나갈 것이라...

끝으로 이땅의 진솔한 정치인!, 옳고 바른 일에는 거침없는 하이킥 발언으로 메스를 가하는 정치인! 소신과 정의, 공정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시하는 2030세대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정치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릴적 꿈꿨었고, 그 꿈을 위해 살아 온 그의 큰 꿈이 꼭 이뤄지는 날이 반드시 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주문드려 본다.

“꿈은 이루어 진다. 특히 함께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

이사속자은 기부심
리우기
기부심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랑의연대
Korea Press Foundation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건본주택 24일 개관... “첫자리” 입지

- ▲ 화양지구 5BL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 전용 72~84㎡ 총 1,571가구 규모 대단지
- ▲ 화양지구 ‘첫 자리’에 조성...외부 접근성, 평택항 인근 산단 직주근접 우수
- ▲ 중앙공원 1,700여평, 커뮤니티시설 1,100여평...일부 고층부서 ‘오션뷰’도 가능 전망
- ▲ 3월 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화) 1순위 접수...계약금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오는 24일(금)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아파트의 건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이 지역에 선보이는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은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5BL(블록)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1층, 14개 동, 전용 72~84㎡ 총 1,571가구 규모 대단지로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72㎡ 149가구 ▲76㎡ 76가구 ▲84㎡ A 929가구 ▲84㎡B 315가구 ▲84㎡C 102가구가 구성된다.

전체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이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고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 **핵심 국도와 가까운 ‘첫 자리’ 입지... 외부 접근성, 직주근접 우수 입지**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단지가 들

어서는 화양지구는 ‘서(西) 평택 개발의 완성 조각’으로 불리는 계획도시로 핵심 도로인 38번국도와 특히 가까운 ‘첫 자리’에 지어진다.

아산국가산업단지(포송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등 평택항 인근의 굵직한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외부 접근성도 뛰어나다. KTX 경유가 예정된 안중역(예정)까지 이동도 편리한데, 열차 이용 시 서울까지 약 30분 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단지 바로 옆에는 쾌적한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2025년 개교가 예정된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계획부지들도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유동인구가 몰려 볼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심 상업용지와 종합병원(2025년 예정), 평택시청 안중출장소(2025년 예정) 부지는 직선거리 약 1.5km 내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다.

◆ **조경·커뮤니티 특화 아파트...일부 고층부서 ‘오션뷰’도 가능 전망**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은 화양지구 내에서도 단일 블록 기준 최대 규모 단지로 ‘힐스테이트’만의 노하우가 담긴 특화 설계도 단지 곳곳에 적용된다.

우선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은 지대가 높고, 화양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31층으로 시공된다. 이에 일부 고층부서에서는 서해바다와 서해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단지에 걸맞은 조경과 약 1,100여 평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조경 면적을 40% 이상(약 9,000평) 배치했고, 중앙공원은 1,700여

평 규모로 예정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G.X룸,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이 조성돼 실내에서도 간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타디움과 함께 어린이집, 맘&키즈카페, 맘스테이션도 계획돼 학부모 입주민들의 니즈도 고려했다.

입주민들의 ‘스마트 라이프’도 돕는다. 주차장에는 ‘주차장 통합시스템 연동형 CCTV’가 설치돼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 동선을 파악, 조명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알려준다.

또 스마트폰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파워도 눈여겨볼 만하다. 힐스테이트는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1위(2022, 브랜드스타), 3년 연속 아파트 브랜드파워 1위(2019~2021, 닥

터아파트), 47개월 연속 브랜드평판지수 1위(2019~2023,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한 브랜드다.

◆ **3월 6일(월) 특별공급, 7일(화) 1순위...계약금 정액제(1차),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 제공**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청약 일정은 3월 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화)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14일(화)이다.

이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12개월 경과)과 지역별 예치금(평택시 기준 200만 원)을 충족한 성인이라면 전국에서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1순위 청약시 물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구성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없이 추첨

제로 넘어간다.

단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평택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은 뛰어난 입지와 브랜드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신 아파트”라며 “경쟁력 있는 합리적 분양가, 우수한 계약 조건, 그리고 좋은 상품성까지 갖춰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으로 중도금 대출에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건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3 일원(소사별지구 배다리공원 맞은편)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문의 : 1855-1571

양시현기자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